국립국어원 2015-01-36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602-01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연구 책임자: 양 민 호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양민호(성결대학교)

참여 연구진

연구 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양민호(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공동 연구원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한성우(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공동 연구원	조태린(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공동 연구원	임석규(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김수영(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동은(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연구 보조원	임홍연(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경혜(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이지애(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본 연구는 2014년 평택지역 시범조사를 토대로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지난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조사항목을 체계화 시키고 질문지를 조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대 간, 남녀 간의 언어생활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음성/음운 26항목, 어휘 35항목, 문법 10항목, 담화 12항목으로 총 83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인은 연령과 성별이었다.

조사항목 중에서는 특히 어휘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 언어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구분을 해 보면 35세 이하의 청년층, 36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장년층, 66세 이상의 노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대도시 언어생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어휘(생략형 등)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같은 의미지만 그 어휘의 표현 양식에서 생기는 위화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 남녀 간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세대 간의 공통 어휘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담화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표현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요구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언어습관 및 언어행동을 타인에게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언어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4년 시범조사 때보다 제보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향후 중소도시와 같이 규모별 도시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대 간의 언어생활 비교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비교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 항목을 좀 더 줄이고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국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로 대한민국 언어생활의 대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대도시, 사회방언, 조사, 의사소통, 변인, 세대차, 성별, 연령

Sociolinguistic Survey in Big City

This study planned and executed 2015 dialect of urban areas based on a pilot survey on Pyeongtaek area in 2014. After grasping problems of past survey, investigating items were systemized and reorganization of questionnaire was made by fitting to investigating purposes. By doing so, researcher tried to analyze the dialect of urban areas comprehensively, and disclose differences of language life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 investing items used in this research are same as follows.

Total 83 items such as 26 items of phonetic/phoneme, 35 items of vocabulary, 10 items of grammar, and 12 items of Discourse were investigated, and various social variables like age, sex, job, education, region etc. were reviewed together. Among them, what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ly was ages and gender.

Regarding vocabulary parts among investigating items, significant differences could be confirmed especially, and ages can be count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sociolinguistics variables. Based on this, significant differences could be confirmed between youth class of below 35-year-old, middle-aged class from over 36 to below 65, and the elderly of over 66 year-old. Also, a fact could be known that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ed urban language life through this investigation. For example, incompatibility occurred from the vocabulary forms of expression even though having same meaning was existed between youth class who had a good command of new vocabulary (abbreviated forms etc.) and middle-aged class who did not so. For easy social communications in Korea, efforts for lessening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 and gender shall be made. In addition, efforts of trying to share common vocabularies between generations are necessary, and forming consensus on the expressing forms which would be different mutually in case of discourses is needed. Thus, the language life which considers and understands each other without unconditionally compelling others by own language behavior and actions will be the basic of real communications.

In this research, there was insufficiency in securing objective datum even though the number of informant was enlarged than 2014 pilot investigation. Comparison between regions as well as language life between generations would be essential continuously through carrying out investigations by scale lik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fterwards. Moreover, it is judged that reducing investigating items more and doing in-depth qualitative researches will be required to make smooth communications between generations.

Through such researches, promising perspectives of Korean language could be predicted, and it may be necessary to provide representative materials on Korean language life as accumulating datum in future.

Keywords: Big city, Sociolinguistic survey, Communication, Variation, Generation gap, sex, age

<목 차>

I. 서론1. 연구 개요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2 연구 내용 및 수행 전략1.3 사업 일정	1 1 1 1 5
2. 조사 개요	 7
2.1 조사지점 및 인원 2.2 조비 자연	 7 8
2.2 준비 작업 2.3 제보자 개요	 11
2.4 조사의뢰 공문 및 플래카드 제작	 14
2.5 예비 조사항목 선정	 16
2.6 최종 조사항목 선정	 17
2.7 조사결과 입력 매뉴얼	 21
2.8 연구진 및 조사원 간의 피드백	 25
II. 본론	 27
n. ᆫᆫ 3. 결과 및 분석	 27
3.1 조사 지역구의 특징	 27
3.2 카이제곱분석	 30
3.3 항목별 분석 - 음운/음성	 36
3.4 항목별 분석 - 어휘	 65
3.5 항목별 분석 - 문법	 89
3.6 항목별 분석 - 담화	 97
	-
III. 결론	 118
4. 연구의 의의	 118
4.1 본조사의 의의	 118
4.2 기대효과	 122
참고 문헌	 127
부록 I - 질문지 부록 Ⅱ - 교차분석표	 130

<표 목 차>

<표 1> '떼(e/E)'의 연령별 실현율	36
<표 2> '때(ε/E)'의 연령별 실현율	3'
<표 3> '외삼촌(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38
<표 4> '밥하고(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39
<표 5> '더럽다(ㅓ/ㅡ)'의 연령별 실현율	40
<표 6> '외삼촌(ㅗ/ㅜ)'의 성별 실현율	4
<표 7> '밥하고(ㅗ/ㅜ)'의 성별 실현율	4
<표 8> '더럽다(ㅓ/ㅡ)'의 성별 실현율	42
<표 9> '못 잊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4
<표 10> '옷 입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4
<표 11> '맡기다(아/애)'의 연령별 실현율	40
<표 12> '맡기다(아/애)'의 직업별 실현율	4'
<표 13> '맡기다(아/애)'의 학력별 실현율	48
<표 14>'밥하고(ㅍ/ㅂ)'의 연령별 실현율	49
<표 15> '깨끗하다(ㅌ/ㄷ)'의 연령별 실현율	4
<표 16> '원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5
<표 17> '온라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52
<표 18> '원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53
<표 19> '온라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53
<표 20> '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54
<표 21> '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5
<표 22> '맑다(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5'
<표 23> '읽고(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5'
<표 24> '짧다(ㄹ/ㅂ)'의 지역별 실현율	58
<표 25> '펴다(여/이/에)'의 연령별 실현율	59
<표 26> '밭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60
<표 27> '꽃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6
<표 28> '베개(에/여/이)'의 연령별 실현율	62
<표 29> '나니까(나니까/날으니까)'의 연령별 실현율	63
<표 30> '명절을 쇠다'(고유어 소멸) 교차표	65
<표 31>'서리'인지 교차표	69
<표 32> '다르다/틀리다'교차표	60
<표 33> '누다/싸다'교차표	6′
<표 34>'썰다/자르다'교차표	6'

<丑	35>	'가렵다/간지럽다'교차표	 68
<丑	36>	'주다/달다'연령 교차표	 68
<丑	37>	'주다/달다'성별 교차표	 69
<丑	38>	'손수/직접' 교차표	 69
<丑	39>	'편찮다/아프다'교차표	 70
<丑	40>	'부추'(표준어의 확산, 방언의 인지) 교차표	 70
< <u>∓</u>	41>	표준어형('부추')-인지 성별 교차표	 71
<丑	42>	'비밀번호 → 비번'(줄임말) 교차표	 71
<丑	43>	'선생님 → 샘/쌤'(줄임말) 교차표	 72
<丑	44>	'물냉면 → 물냉'(줄임말) 교차표	 72
<丑	45>	'파리바게트 → 파바'(줄임말) 교차표	 73
<丑	46>	'휴대전화'(순화어) 교차표	 73
<丑	47>	'집단따돌림'(순화어) 교차표	 74
<丑	48>	'텔레비전'(외래어) 교차표	 74
<丑	49>	'단무지'(외래어) 교차표	 75
<丑	50>	'히야시'(외래어) 교차표	 75
<丑	51>	'히야시'인지 비율(%)	 76
<丑	52>	'히야시'(외래어) 성별 교차표	 76
<丑	53>	'아빠/아버지'(호칭) 교차표	 77
<丑	54>	'엄마/어머니'(호칭) 교차표	 78
<丑	55>	'엄마/어머니'(호칭) 성별 교차표	 78
<丑	56>	'여보'(호칭) 교차표	 78
<丑	57>	'여보'(호칭) 교차표	 79
< <u>∓</u>	58>	'아비/아범'(지칭) 교차표	 79
<丑	59>	'집사람'(지칭) 교차표	 80
<丑	60>	'형/오빠'(호칭) 교차표	 81
<丑	61>	'형/오빠'(호칭) 성별 교차표	 81
<丑	62>	'사장님'(호칭) 교차표	 82
<丑	63>	'사장님'(호칭) 성별 교차표	 82
<丑	64>	'사장님'-사용 성별 교차표	 82
<丑	65>	'언니'(호칭) 교차표	 83
<丑	66>	'언니'(호칭) 성별 교차표	 84
<丑	67>	'너무'(의미 확장) 교차표-'너무 좋아요'	 84
<丑	68>	'너무'(의미 확장) 성별 교차표	 85
<丑	69>	'착하다'(의미 확장) 교차표-'가격이 착하다'	 85

<표 70> '착하다'-사용 성별 교차표	 86
<표 71>'섞다'(의미 확장) 교차표	 86
<표 72>'섞다'(의미 확장) 성별 교차표	 86
<표 73> '언중유골'(관용어) 교차표	 87
<표 74> '가는 날이 장날'(속담) 교차표	 87
<표 75> '약방에 감초'(속담) 교차표	 88
<표 76> 성별에 따른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의 사용 빈도	 89
<표 77> 연령대에 따른 '주십시오'와 '주세요'의 사용 빈도	 90
<표 78> 연령대에 따른 '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빈도	 91
<표 79> 연령대에 따른 의문형 어미'-니'등의 사용 빈도	 92
<표 80> 성별에 따른 의문형 어미'-니'등의 사용 빈도	 93
<표 81> 연령대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빈도	 94
<표 82> 성별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빈도	 95
<표 83> 연령대에 따른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98
<표 84> 연령대에 따른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101
<표 85> 연령대에 따른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103
<표 86> 연령대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빈도	 105
<표 87> 성별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빈도	 106
<표 88>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108
<표 89>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109
<표 90> 성별에 따른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111
<표 91> 연령대에 따른 승낙 표현의 사용 빈도	 112
<표 92> 연령대에 따른 호출 표현의 사용 빈도	 114
<표 93> 연령대에 따른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빈도	 116

<그 림 목 차>

<그림	1> '떼(e/E)'의 연령별 실현율	 36
<그림	2> '때(ε/E)'의 연령별 실현율	 37
<그림	3> '외삼촌(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38
<그림	4> '밥하고(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39
<그림	5> '더럽다(ㅓ/ㅡ)'의 연령별 실현율	 40
<그림	6> '외삼촌(ㅗ/ㅜ)'의 성별 실현율	 41
<그림	7> '밥하고(ㅗ/ㅜ)'의 성별 실현율	 42
<그림	8> '더럽다(ㅓ/ㅡ)'의 성별 실현율	 43
<그림	9> '못 잊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44
<그림	10> '옷 입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45
<그림	11> '맡기다(아/애)'의 연령별 실현율	 46
<그림	12> '맡기다(아/애)'의 직업별 실현율	 47
<그림	13> '맡기다(아/애)'의 학력별 실현율	 48
<그림	14>'밥하고(ㅍ/ㅂ)'의 연령별 실현율	 49
<그림	15> '깨끗하다(ㅌ/ㄷ)'의 연령별 실현율	 50
<그림	16> '원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51
<그림	17> '온라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52
<그림	18> '원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53
<그림	19> '온라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54
<그림	20> '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55
<그림	21> '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55
<그림	22> '맑다(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57
<그림	23> '읽고(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58
<그림	24> '짧다(ㄹ/ㅂ)'의 지역별 실현율	 58
<그림	25> '펴다(여/이/에)'의 연령별 실현율	 60
<그림	26> '밭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61
<그림	27> '꽃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61
<그림	28> '베개(에/여/이)'의 연령별 실현율	 62
<그림	29> '나니까(나니까/날으니까)'의 연령별 실현율	 63

<그림	30>	'다르다/틀리다' 평택조사 결과	 66
<그림	31>	'언니'(호칭) 평택조사 결과	 83
<그림	32>	성별에 따른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의 사용 비율(%)	 89
<그림	33>	연령대에 따른 '주십시오'와 '주세요'의 사용 비율(%)	 90
<그림	34>	연령대에 따른 '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비율(%)	 91
<그림	35>	연령대에 따른 의문형 어미'-니'등의 사용 비율(%)	 92
<그림	36>	성별에 따른 의문형 어미'-니'등의 사용 비율(%)	 93
<그림	37>	연령대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	 94
<그림	38>	성별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	 95
<그림	39>	연령대에 따른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99
<그림	40>	연령대에 따른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101
<그림	41>	연령대에 따른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103
<그림	42>	연령대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비율(%)	 105
<그림	43>	성별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비율(%)	 106
<그림	44>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108
<그림	45>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109
<그림	46>	성별에 따른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111
<그림	47>	연령대에 따른 승낙 표현의 사용 비율(%)	 113
<그림	48>	연령대에 따른 호출 표현의 사용 비율(%)	 114
<그림	49>	연령대에 따른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	 116
<그림	50>	'피곤하지 않다'와 '안 피곤하다'의 남녀 차이	 122
<그림	51>	표준발음 '베개'의 세대 차이	 123
<그림	52>	세대 간 소통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줄임말 '물냉'의 차이	 124
<그림	53>	어휘 확산 '선생님'의 세대 차이	 125
<그림	54>	사회 방언 조사 비교 모델	 126

I. 서론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대의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언어문화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 언어문화 사회가 붕괴되고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 소통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 지역의 방언이 섞이고, 그로 인해전통적 농어촌 지역보다 더 큰 언어문화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언어 변종도, 어떤 사회 변화를 겪은 세대인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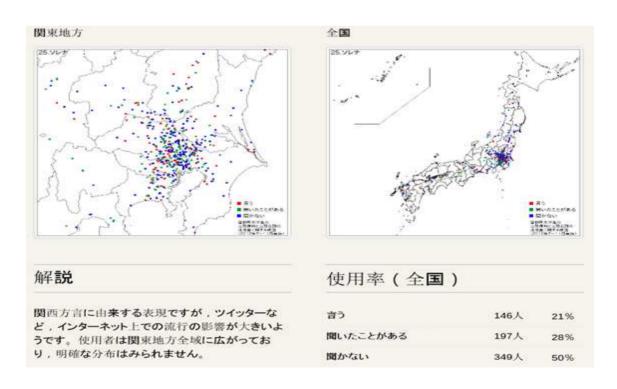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언어문화에 대한 세대별 조사,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금 현재의 언어 상태가 어떠한지 세대별로 관찰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세대별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2014년 경기도 평택 지역의 시범조사를 통해 서울 인접 지역의 언어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과의 언어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새 로운 언어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내용 및 수행 전략

- 1) 목표 :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분석 및 웹 게시용 이미지 제작
- ▷ 연구 전략
- ① 세대별 언어 사용 실태 및 국어 변이 조사 질문지 검토 및 보완
- 2014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세대차를 보이는 항목을 우선 추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재추출
- 사회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조사 항목을 발굴 및 추출
- ② 표본 조사 및 통계 처리 분석

- 조사 지역 : 서울의 지역 간 비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특징적 6개 권역으로 구분
- 조사 대상 및 인원수 : 16세 이상의 남녀 총 300명
- 조사 내용 : 음운, 어휘, 문법, 담화 등 해당 언어 항목에 대한 조사 외에 새로운 항목 추가
- 표본 추출 방법 : 전문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견적 등의 문제로 연 구진의 엄격한 통제 아래 할당 표본 추출 방식
- 조사 방법 : 질문지를 통한 1:1 면접 조사
- 통계 분석 : SPSS를 통한 세대별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변인인 '성별, 소득 수준 및 지역적 특징'등 언어 외적 요소를 고려한 분석
- ③ 대도시 지역의 사회 방언 조사 결과 중 통계 자료에 대한 웹 게시용 이미지 제작
- 통계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을 선별
- 외국(특히 일본)의 이미지 제작 사례 검토를 통해 작성, 예를 들어 서울 언어 지도와 인지, 이해,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표와 간단한 해설 첨부
-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고해상도의 웹 게시용 이미지 3개 항목 제작



<일본국립국어연구소 수도권 언어동태 조사 발췌 자료>

- ④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성과물 활용 방안 제시
- 대도시 지역의 세대 구분 양상을 파악
- 세대 간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언어 요소 파악
- 그러한 상위를 초래하게 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 ⇒ 예를 들어 표준발음 정책 등과 같이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검증된 기초 자료로 활용

2) 연구 수행 방법

(1) 기존 조사 자료 검토

- 2014년의 평택 조사(16세 이상, 100명) 결과에서 조사가 잘된 항목과 잘 되지 못한 항목 구분
- 조사 성패의 언어 내적·외적 원인 분석
- 본 연구진 5명과 국립국어원 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조사 질문지 작성

(2) 표본 추출 및 사회 방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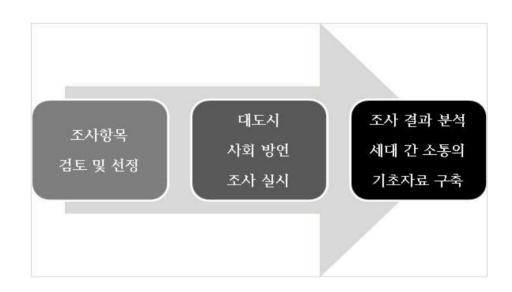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총 3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
- 연구진의 지도 아래 조사원 훈련
-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연구진의 관장 하에 표본 추출
- 실제 조사(조사원 1인당 최소 60명 조사)

지역구	지역 이미지	비고
노원구	서민 계층(공동주택 밀집 지역 상위 지역)	
성북구	다양한 직업계층(상업지구 밀집지역)	서울 통계 및
영등포구	다문화 접촉(등록 외국인 제일 많은 지역)	각종 지표를 통해 샘플링
서대문구	젊은 세대 접촉(교육기관 밀집 지역)	http://stat.s
관악구	학원가(20-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eoul.go.kr/
서초구	상위 계층(서울 통계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최저 지역)	

(3) 결과 정리 및 통계 처리와 분석

- 조사 결과를 엑셀로 정리
- 세대에 따라 사용 비율이 급격한 감소나 증가를 보이는 항목 선별

- 전체 통계 처리 후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항목' 선별
- 사용 비율의 감소나 증가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분석
- 조사한 언어 변이에 관여하는 연령 이외의 변수 분석
- (4) 해당 지역의 세대 구분 지도 작성
-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세부 지점별로 세대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 양상을 파악
- 세대 구분 양상과 사회의 변화 사이의 상관성 파악
- (5) 일부 통계 결과에 대한 웹 게시용 이미지 제작
- 언어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언어 변이 항목 3개를 선별
- 적절한 방식의 웹 게시용 이미지 개발



- 3) 연구의 특징
- (1) 인적 구성의 전문성 지역 방언 및 사회 방언 전공자로 구성
- (2) 사업의 연계성 2014년도에 동일한 조사·연구를 수행
- 4) 연구의 기대효과
- (1) 도시 방언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의 기초 자료 구축
- (2) 장기적 안목에서 세대, 지역 간 방언 자료 확충

5) 연구의 의의

(1) 각 지역에서 모인 방언 화자를 포함하여 사회방언학적 변인 요소를 모

두 갖춘 사람들이 모인 대한민국의 축소판 도시 서울에서의 언어생활을 파악함으로 공통어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통해 미래를 예

측함.

(2) 향후 효과적 언어정책과 어떠한 사회언어학적 변인이 언어생활 속에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3)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통과 불통의 경계에 있는 언어 내적,

외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충분한 의의를 지

님.

1.3 사업 일정

- 2015년 6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월 : 샘플링 견적 의뢰 및 방법 등 조사 관련 준비 작업 * 착수 보고

할당표본추출법 (quota sampling)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구성의 각 층의

표본을 강제적으로 할당, 그 크기를 달성하도록 표본 구성하는 방법

7-8월 : 조사 의뢰 메일 작성 및 제보자 확정 후 연락

(의뢰처-각 지역구청 및 협력기관) 노원구 : 사단복지법인 성민, 마들사회복지관 등

유의미한 사회방언 조사 항목 검토

8-9월 :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실시

10-11월 : 조사 결과 일부 정리 * **중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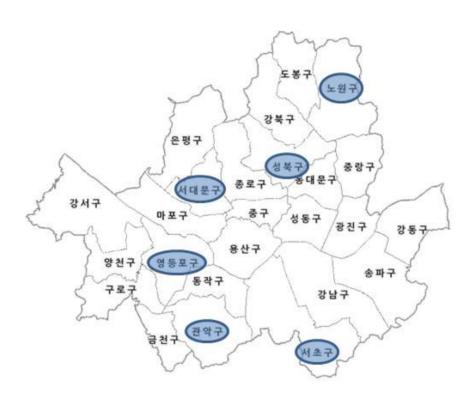
12월 : 결과물 제출 준비 * 결과보고

연구진 구성 및 업무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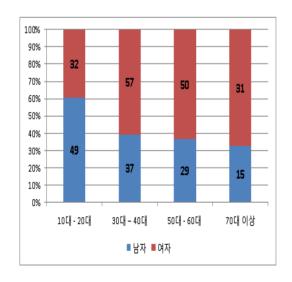
구분	이름	소속 / 직위	전공
	양민호 (총괄)	성결대학교 / 조교수	사회언어학
~ 7 ~ 0	정승철 (항목 선정)	서울대학교 / 교수	방언학
연구원 (연구팀)	한성우 (통계 처리)	인하대학교 / 교수	방언학
(616)	조태린 (항목 선정)	대구대학교 / 교수	사회언어학
	임석규 (결과 분석)	원광대학교 / 교수	방언학
	김수영 (조사)	서울대 국어국문학 / 대학원	국어학
연구	임홍연 (조사)	서울대 국어국문학 / 대학원	국어학
보조원	이지애 (조사)	인하대 한국학 / 대학원	한국어학
(조사팀)	김경혜 (조사)	인하대 한국학 / 대학원	한국어학
	김동은 (조사)	서울대 국어국문학 / 대학원	국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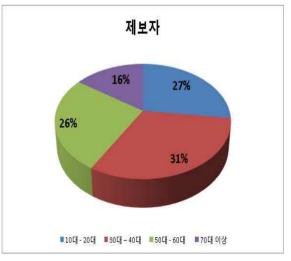
2. 조사 개요

2.1 조사지점 및 인원



조사인원	10대 - 20대	30대 - 40대	50대 - 60대	70대 이상	계
남자	49	37	29	15	130
여자	32	57	50	31	170
계	81	94	79	46	300





2.2 준비 작업

2.2.1 조사 매뉴얼 작성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원 간의 조사 방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 조사를 가정하여 연습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조사 매뉴얼과 조사 유의사항을 기록하여 조사의 공정성 및 편차 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에 관한 기본 매뉴얼

● 소개: 조사자 소개 및 서울지역 사회방언 조사 취지 안내

서울시 거주자 대상 :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300명

조사 지역구별(노원구, 서초구, 영등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남녀 총 50명 (10-20대 14명, 30-40대 14명, 50-60대 14명, 70대 이상 8명)

조사형태 : 전문 조사원에 의한 1대1 면접 조사

의뢰 내용 : 각 구청 소속 이용 기관 이용객 및 협조 가능한 분 섭외, 회의실 등

장소 제공

조사 시기 : 2015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조사 시간 : 약 30분

조사자에 대한 사례비 : 1인 10,000원

2.2.2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에 관한 세부 매뉴얼

■ 조사 지역 분배

- 각 구 50명, 총 300명 조사
- 남녀 비율은 일정하게 맞출 것
- 10-20대 14명, 30-40대 14명, 50-60대 14명, 70대 이상 8명
- 서대문구, 영등포구: 김경혜, 이지애
-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김수영, 김동은, 임홍연
- 노원구: 공동으로 진행

■ 조사 일정 및 방법

- 조사 일정: 10월 중순까지 할당된 구에 대한 조사를 마침.
- 조사 방법
- 공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
- 조사 시간: 20-30분 정도
- 녹음: '음운 항목' 등 음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만 녹음.
- 제보자 선정 조건: 출생지 및 외지 생활 여부 등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가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노원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보자로 적합함.
- 동의서 및 제보자 조사표
- 제보자 조사표: '출생 연도'를 꼭 기록하고, '외지 생활' 항목의 경우 국내는 3년 이상, 해외는 1년 이상의 경험만을 기록함, 퇴직자의 경우 '직업'란에는 마지막 직업을 기입함.

■ 조사 시 유의적

- 통계 처리가 쉽도록, 각 항목의 조사 목적에 맞게 변이형 수를 최대한 줄 여야 함.
- '반드시 -형 유도'와 같은 유의사항을 잘 읽고 이를 따라야 함.

1) 음운 항목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인지/사용 조사는 하지 않음.
- '╢/ㅐ', '괴/귀'의 변별에 유의할 것
- 성조('말이 많다') 조사 시에는 제보자가 경상도 혹은 성조 방언 지역 출신일 경우 유의하여 조사함.

2) 어휘 항목

- 인지/사용에 대하여 조사함.
- '다르다/틀리다'(어03), '밥/진지'(어09)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항목에서는, 복수로 응답하더라도 제보자에게 하나를 고르도록 유도함.
- '부추'(어11), '단무지'(어19), '히야시'(어20), '엄마/아빠'(어21,22)와 같은 항목들은 다양한 응답형이 나오더라도 타깃이 되는 어형('부추', '단무지', '히야시', '엄마', '아빠')의 사용 여부가 조사 목적이므로 이를 확인할 것. 그러나 조사 시 응답형을 모두 기록하여야, 이후 필요한 경우에 변이형들의 빈도를 살펴볼 수 있음(예: '아비/아범' 항목의 경우 ㅇㅇ아빠, '여보' 항목의 경우 '자기(야)' 등).

3) 문법 항목

- 인지/사용에 대하여 조사함.
- '하자요'(문05)는 필요한 경우 '한다요'의 사용 여부도 함께 조사할 수 있음.

4) 담화 항목

- 상황을 잘 설명하여 제보자의 응답형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설문지 카드를 준비하여 제보자에게 직접 고르도록 함.

2.3 제보자 개요

노원구의 경우 조사원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구는 해당 기간 안에 조사원이 수차례 방문하였기에 기간으로 표시하였다.

① 노원구 조사 결과 - 조사원 공동 조사

1. 조사 일시: 2015. 10. 18. / 2015. 10. 28.

2. 조사 장소: 노원구: 노원성당, 노원구청, 마들복지관, 성민복지관

	남자	여자
10대 - 20대	8	7
30대 - 40대	7	6
50대 - 60대	6	7
70대 이상	2	7
계	23	27
총계	5	0

② 성북구 조사 결과 - 임홍연 조사원

1. 조사 일시: 2015. 10. 5. - 2015. 11. 6.

2. 조사 장소:

성북구: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경대학교, 길음 뉴타운 아파트, 길음 경남아파트 경로당, 길음역, 성신여대입구역, 혜화역, 응암역

	남자	여자
10대 - 20대	11	4
30대 - 40대	8	7
50대 - 60대	7	7
70대 이상	0	6
계	26	24
총계	5	0

③ 서대문구 조사 결과 - 이지애 조사원

1. 조사 일시: 2015. 9. 23. - 2015. 10. 23.

2. 조사 장소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이진아 기념도서관, 광화문역 스타벅스, 북아현동 주 민센터, 연세대, 인하대

	남	여
10대 - 20대	7	3
30대 - 40대	4	17
50대 - 60대	1	8
70대 이상	3	7
계	15	35
총계 50		0

④ 영등포구 조사 결과 - 김경혜 조사원

1. 조사 일시: 2015. 9. 23. - 2015. 10. 23.

2. 조사 장소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앞 공원, 창신 경로당, 신길1동 주민센 터, 인하대

	남	여
10대 - 20대	5	5
30대 - 40대	6	14
50대 - 60대	3	8
70대 이상	4	5
계	18	32
총계	5	0

⑤ 관악구 조사 결과 - 김동은 조사원

1. 조사 일시: 2015. 9. 22. - 2015. 10. 24.

2. 조사 장소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학동 주민센터, 녹두거리, 도림천

	남	여
10대 - 20대	7	7
30대 - 40대	7	7
50대 - 60대	7	7
70대 이상	4	4
계	25	25
총계 50		0

* 조사 지침 혼동으로 2015. 9. 22. - 2015. 9. 24. 조사분 9명은 녹취 파일 부재

⑥ 서초구 조사 결과 - 김수영 조사원

1. 조사 일시: 2015. 9. 23. - 2015. 11. 1.

2. 조사 장소

서초구: 서초구청, 방배3동 주민센터, 반포성당 등

	남	여	
10대-20대	11	6	
30대-40대	5	6	
50대-60대	5	13	
70대 이상	2	2	
계	23	27	
총계	50		

2.4 조사의뢰 공문 및 플래카드 제작

협조 공문 내용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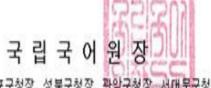
국 립 국 어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참여 협조 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국립국어원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매체의 확산으로 새로운 언어 환경이 생성됨에 따라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3. 이에 조사 개요 및 협조 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적극 협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 조사명: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 나. 조사 기간: 2015, 9, ~ 2015, 10,
 - 다. 조사 지역 및 조사 기관: 서울시 내 6개 구청 및 구청 관할 내 기관 및 단체 ※ 노원구, 서초구, 영등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내 구민센터, 여성회관,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등
 - 라. 조사 대상자: 10대~70대 남녀 300명(각 구별 50명)
 - ※ 조사 시간: 약 30분 / 사례비: 10,000원(1인)
 - 마. 조사 형태: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 바. 연구 및 조사 인력
 - 책임 연구원: 양민호(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 조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하대학교 대학원생
 - 사. 요청 사항
 - 1) 각 구청 및 구청 관할 내 기관, 단체의 이용객 섭외
 - 2) 설문 장소 제공(회의실 또는 설문이 가능한 장소). 끝.



수신자 노원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성복구청장, 광악구청장, 서대문구청장

한시임기제

62

박주화

어문연구과장 전결 2015, 9, 7,

협조자

시행 어문연구과-1124 (2015, 9, 7.) 접수

우 07511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금낭화로 154(방화동) 국립국어원 어 / http://www.korean.go.kr

문연구과

전화번호 02-2669-9716 팩스번호 02-2669-9737 /bluemind@mcst.go.kr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ほん ひら いかいははん

잊시: 9월 ~ 10월 대상: 우리 구 주민

소요시간: 20분 내외 수 과 : 🎅 국립국어원 🌘 성결대학교

(조사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비 지급)

<조사용 플래카드>

2.5 예비 조사항목 선정

예비 조사항목 선정에 대해서는 엑셀에 '조사항목 후보군'이란 시트에 연구 진의 의견과 국어원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작업하였다. 진한 파란색 셀은 모든 연구진이 공감하여 다시 조사하는 항목이며, 옅은 파란색 셀은 대다수 선생님 들이 다시 조사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항목이다. 그리고 초록색 셀은 변형시키 거나 추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이다. 신규 항목은 아래 표에서 생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과 항목 가감을 통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선 정하였다.

В	C	D	E	
대도시 자역사회 방인 조사항목	저외	저외	저외	
구분	전체 의견 종합	점승절	임석규	
음01_2	띡	щ	щ	
음04_1	의사	의사	의시	
음05	어디로(보완 교체: 물로)	어디로	어디로	
음06-1	GET	더럽다	덕랍다	
음06-2	더렇다	더렇다	덕립다	
810	못 맞어(보완 교체:낯익은, 옷입고, 못 밀어나)	못 잊어	못 잊어	
음14_1	밥하고	밥하고	밥하고	
음14_2	밥하고	밥하고	밥하고	
음14_3	발하고 콘돔(프란 프제 - 근무라건무라장인무 유민부, 급간	밥하고	밥하고	
윤15	عا (عاد العاد العا	題名	원룸	
음16	잡아라	잡아라	잡아리	
음18	음18 양다(보완 교체 : 닭다) 양다		맑다(추가 보완 : 맑다	
골	짧다	짧다	짧디	
음20_1	음20_1 퍼다 <u></u> 페다		폐디	
음20_2	음20_2 폐다 <mark> 폐다</mark>		펴디	
음21	받이	받이	밭이	
<u>용</u> 22	꽃이	꽃이	(乗り)	
最23	값이(보완 교체 : 담볏값이)	강이	값이	
음24_1	여달이	여덟이	여덟이	
음24_2	여달이	여덟이	여덟이	
물26	잎이(보완 교체 : 풀잎이)	요이	9	
음27_1	부엌	부엌	부엌	
음27_2	부엌	부엌	부엌	
머취	Į.			
어02_1	소다(명절을)	소타(명절을)	<u> </u>	
<mark>어</mark> 02_2	쇠다(명절을)	쇠다(명절을)	<u> </u>	
어02_3	소다(명절을)	쇠다(명절 <u>을</u>)	<u> </u>	
어02_4	쇠다(명절 <u>을</u>)	쇠다(명절 <u>을</u>)	쇠다(명절 <u>을</u>)	

<본 조사를 위한 항목 선정 작업 예시>

결과적으로 음성/음운 항목보다 어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항목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항목 추가가 이루어졌다.

2.6 최종 조사항목 선정

총 83항목 - 음운 26 항목, 어휘 35 항목, 문법 10 항목, 담화 12 항목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에 수정 또는 추가된 항목

1. 음운 (2014년 평택 조사 37 항목 → 2015년 서울 조사 26 항목)

음 01-1	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떼
음 01-2	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때
음02	음운체계 - 단모음 '위'	쥐
음03	고모음화/단모음 '외'	외삼촌
음04	고모음화/음장	더럽다
음05	초분절운소 - 장단/성조	말(膏)이 많다
음 06	ㄴ첨가	못 잊어
음07	ㄴ첨가	옷 입어
음08	움라우트/위치동화	맡기다
음09	유기음화/고모음화	밥하고
음10	유기음화	깨끗하다
음11	유음화와 ㄹ>ㄴ의 변화	원룸
음12	유음화와 ㄹ>ㄴ의 변화	온라인
음13	모음조화	잡아라
음14	모음조화	맡아라
음15	자음군단순화	맑다
음16	자음군단순화	읽고
음17	자음군단순화	짧다
음18	'여 > 이'의 변화	펴다
음19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받이
음 20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꽃이
\ 21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여덟이
\ 22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잎이
음 23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나뭇잎이
음 24	'에 > 이'의 변화에 의한 재구조화	베개
\$ 25	이중모음 '의'의 변화	의사
음 26	ㄹ말음 용언의 활용	나니까/날으니까

2. 어휘 (2014년 평택 조사 26 항목 → 2015년 서울 조사 35 항목)

어01	고유어 소멸	명절을 쇠다
어02	고유어 소멸	서리
어03	방언의 확산	다르다/틀리다
어04	어휘의 혼동	누다/싸다
어05	어휘의 혼동	썰다/자르다 ●
어06	어휘의 혼동	가렵다/간지럽다 •
어07	어휘의 혼동	주다/달다
어08	어휘의 혼동	손수 ●
어09	경어	밥/진지 •
어10	경어	아프다/편찮다 •
어11	표준어의 확산, 방언의 인지	부추
어12	줄임말	비밀번호 → 비번
어13	줄임말	선생님 → 샘/쌤 ●
어14	줄임말	물냉면 → 물냉
어15	줄임말	파리바게트 → 파바
어16	순화어	휴대전화
어17	순화어	집단 따돌림
어18	외래어	텔레비전
어19	외래어	단무지
어20	외래어	र्ज]०१८] ●
어21	호칭	아빠/아버지
어22	호칭	엄마/어머니
어23	호칭	형/오빠
어24	호칭	여보
어25	호칭	여보
어26	지칭	아비/아범
어27	지칭	집사람
어28	호칭	사장님
어29	호칭	언니
어30	의미 확장	너무
어31	의미 확장	착하다
어32	의미 확장	섞다
어33	관용어	언중유골
어34	속담	가는 날이 장날
어35	속담	약방에 감초

3. 문법 (2014년 평택 조사 7 항목 → 2015년 서울 조사 10 항목)

문01	경어법	격식제/비격식체 1
문02	경어법	격식제/비격식체 2
문03	경어법	-이세요
문04	경어법	들어가실게요
문05	경어법	केर्रा €
문06	의문형 어미	가니?
문07	부정의문문	네/아니오
문08	부정의문문	해 줄 수 있니?/해 주지 않겠니?
문09	부정문	안 피곤하다/피곤하지 않다.
문10	명령문	말다

4. 담화 (2014년 평택 조사 7 항목 → 2015년 서울 조사 12 항목)

담01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아니에요
담02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아니에요
담03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해요/고맙습니다
담04	요청/부탁 표현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
담05	요청/부탁에 대한 거절 표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담06	호의에 대한 거절 표현	괜찮아요 ●
담07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담08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	사장님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담09	불만 표현	음식이 너무 짠데요 외
담10	승낙 표현	알았어/알겠어 ●
담11	호출 표현	저기요/여기요 •
담12	비확정적 표현	것 같아요

사회언어학적 속성을 의미하는 페이스 시트

제보자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서울특별시	구	동		
조사 일시	2015년 월	일			
제보자 이름			Ltol	세(년생)
제보자 성별	남()	여()			
출생지					
현 거주지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		570			
	기간	사유			
외지 생활					
직업					*구체적으로 기입
학력					*구체적으로 기입
특이사항					

2.7 조사 결과 입력 매뉴얼

조사원 및 연구원 간의 결과 입력 시 주의 사항과 입력 매뉴얼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 단순 오타인 것 같은 항목

음24 (3) ㅑ -> (3)]

문03 (1) 삼천원이요. -> (1) 삼천원이세요.

→ 조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단순 오타는 수정하였음.

2. 통일이 필요할 것 같은 항목

(1) '다르다/틀리다'류 혹은 '휴대전화/그 외'류와 같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항목에서 조사 당시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다. (어휘 및 문법 대부분)

V03	어03	(1) 다르다 (2) 틀리다 (3) 기타
V03-1-1	어03-1-1	(1) 그렇다 (2) 아니다
V03-1-2	어03-1-2	(1) 그렇다 (2) 아니다
V03-2-1	어03-2-1	(1) 그렇다 (2) 아니다
V03-2-2	어03-2-2	(1) 그렇다 (2)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보자가 '다르다'로 응답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틀리다'에 대한 인지/사용을 조사했다.

- 제보자의 응답형인 '다르다'에 대해 인지하고,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고 입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평택 조사와 동일하게 'y' 등과 같은 다른 입력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 → 조사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후 'y' 기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조사원마다 'V03-1'에 제보자의 응답형(다르다)에 대한 인지/사용을 입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외 어형(틀리다)에 대한 인지/사용을 입력한 경우도 있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니면 V03-2을 아예 없애고 '제보자의 응답형을 제외한 어형(틀리다)'에 대한 인지/사용 여부를 V03-1에 입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보자의 응답형을 제외한 어형(틀리다)에 대한 인지/사용을 입력하도록 함.

(2) 어01(쇠다)

'쇠다'에 대한 인지/사용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쇠다'형을 유도했다. '쇠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1) 쇠다 (2) 지내다 (3) 보내다 (4) 기타 → (1) ('쇠다'를) 안다 (2) 모른다 (3) 기타
- → 조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인지/사용에 대한 입력칸을 마련함.

(3) 어02(서리)

서리 여부(과일/곡물/가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조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4) 어31 (싸다/착하다)

선택지가 '(1) 안다 (2) 모른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들과 같이 '(1) 싸다 (2) 착하다 (3) 기타'로 하고 이하에서 인지/사용 여부를 기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 조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인지/사용에 대한 여부를 기입하게 함.
- (5) 어33 (언중유골), 어34 (가는 날이 장날), 어35 (약방에 감초)의 항목에서 조사 당시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았다.

V33	어 33	(1) 정확한 의미로 안다 (2) 다른 의미로 안다 (3) 모른다 (4) 기타
V33-1-1	어 33-1-1	(1) 그렇다 (2) 아니다
V33-1-2	어 33-1-2	(1) 그렇다 (2) 아니다
V33-2-1	어 33-2-1	(1) 그렇다 (2) 아니다
V33-2-2	어 33-2-2	(1) 그렇다 (2) 아니다

- 이 항목들 또한 인지/사용 여부를 물어보아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각각 '언중유골',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는 가는 날이 장날', '사람에게 사용하 는 약방에 감초') 그 대상에 대한 인지/사용만을 조사하였고 V33-2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조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 없는 입력칸은 수정하였음.
- 또 '가는 날이 장날'의 경우는 입력 선택지를 '(1) 부정적 (2) 긍정적 (3) 모른다 (4) 기타'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 조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지를 추가하여 기입하게 함.

(6) 문07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

이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질문: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응답: '네, 배 안 고파요.' 라고 해요.

질문: '아니오' 라고도 쓰세요?

응답: 네.

질문: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도 쓰세요?

응답: 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입력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택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선택지

G07	문 07	(1) 네, 배고파요 (2) 네, 배고프지 않아요 (3) 아니오, 배고파 요 (4) 아니오, 배고프지 않아요 (5) 기타
G07-1-1	문 07-1-1	(1) 그렇다 (2) 아니다
G07-1-2	문 07-1-2	(1) 그렇다 (2) 아니다
G07-2-1	문 07-2-1	(1) 그렇다 (2) 아니다
G07-2-2	문 07-2-2	(1) 그렇다 (2) 아니다
G01-3	문 01-3	(1) 안 고파요 (2) 고프지 않아요

수정 선택지

		수정된 선택지	입력 결과
G07	문 07	(1) 네, 배 안 고파요 (2) 네, 배고프지 않아요 (3) 아니오, 배 안 고파요 (4) 아니오, 배고프지 않아요 (5) 기타	첫번째 응답형 선택: (1)
G07-1-1	문 07-1-1	(1) 그렇다 (2) 아니다	'아니오'에 대한 인지: (1)
G07-1-2	문 07-1-2	(1) 그렇다 (2) 아니다	'아니오'에 대한 사용: (1)
G07-2-1	문 07-2-1	(1) 그렇다 (2) 아니다	'고프지 않아요'에 대한 인지: (1)
G07-2-2	문 07-2-2	(1) 그렇다 (2) 아니다	'고프지 않아요'에 대한 사용: (1)
G01-3	문 01-3	(1) 안 고파요 (2) 고프지 않아요	삭제 의견

→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단순화시켜 직접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바꾸었음.

3. 추가하고 싶은 선택지들

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응답형을 모아서 제시해 주었다.

어23 (형/오빠)

-> (1) 형/오빠 (2) 선배 (3) 아저씨 (4) 기타

어27 (집사람)

- -> (1) 집사람 (2) 와이프 (3) 아내/부인 (4) oo 엄마 (5) 기타
- → 이와 같은 선택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하였음.

2.8 연구진 및 조사원 간의 피드백

최종적으로 연구진과 조사원 간의 조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먼저 제보자를 구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현 거주지'라는 조건이었다. 각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려면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대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영등포구의 구민들과 대면을 많이하지만 '현 거주지'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대학밀집지역의 특성을 확인하려면 대학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조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보자의 수를 확대하거나 범위를 넓혀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사는 '현 거주지'가 원칙이었으므로 통일된 규정에 맞춰 향후 조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이끌어 내기 어려웠던 항목은, 경어 부분이었다는 조사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실제 발화에서는 '밥/아프세요.'도 상당수 사용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조사에 응답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진지/편찮으세요.'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언어의식과 언어행동을 교차로 확인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음운09 '밥하고'에서 고모음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거하고 반찬은 꼭 있어야 하죠?'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끌려서 '밥하고'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조사를 바꾸어 '반찬은 뭐랑 먹죠?'라고 질문을 하면 '밥이랑'이라고 대답하여 어려움이 따랐다. 이와 같이 유도가 어려운 항목은 향후 응답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휘01 '쇠다'의 경우 모음의 실현에 유의해서 '쇤다'형을 유도했지만 분석 상의 이유로 엑셀에 정리할 때는 '쇠다'의 인지로만 정리해서 아쉬웠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샌다'와 노년층에서의 '쇤다', 그 외 '지낸다', '보낸다' 등으로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어휘04의 '누다/싸다'의 경우 화장실에서는 '누다', 밖에서 혹은 급할 때는 '싸다'로 사용한다고 설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엑셀에 정리할 때는 선택하지 않 은 형의 '인지-사용'으로만 그쳐 이를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 역시 향후 고려 할 부분이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부분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외지 생활 부분이다. 기간과 사유를 조사원들이 열심히 조사했지만, 토박이 조건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거주를 채택하면서 진정한 취지가 빛을 바랬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30 대 이상 제보자들은 '현 거주지'이외에서 성장을 마치고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서 사회언어학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의 변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3. 결과 및 분석

3.1 조사 지역구의 특징

지역구	지역 특징	사이트
노원구	서민 계층 (공동주택 밀집 지역 상위 지역)	
성북구	다양한 직업계층 (상업지구 밀집지역)	함께서울지도
영등포구	다문화 접촉 (등록 외국인 제일 많은 지역)	(http://gis.seoul.go.kr/)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대문구	젊은 세대 접촉 (교육기관 밀집 지역)	(http://data.si.re.k
관악구	학원가 (20-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r/statistics-seoul)
서초구	상위 계층 (서울 통계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최저 지역)	

서울시 누리집을 참조하여 조사 지역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원구의 사업체 수는 2만 4천9백여 개이며, 1988년 도봉구에서 분구될 당시만 해도 농업 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대단위 주거지역이 발달한 지역이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주택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업, 보건복지업 등이 타 산업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은 경원선과 지하철 4, 6, 7호선이 노원구를 지나고 있어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주변이 발달하였다. 또한,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 주변을 따라 건설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동북단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35.44k㎡이다. 인구는 약 60만 1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동이다.

성북구의 사업체 수는 약 2만 4천여 개이며, 종사자 수는 8만 8천5백여 명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북구는 도심과 서울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지역이며, 1960년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중상류층의 단독주택지구가 형성된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정착된 지역이다. 교통으로는 도심과 바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동소문로와 미아로, 종암로

등이 있으며, 정릉길이 북악터널의 개통과 함께 북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다.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북쪽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24.56km²이다. 인구는 약 49만 6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성북구 삼선동이다.

영등포구의 사업체 수는 약 3만 9천5백여 개이며, 경인, 경부철도의 개통과 영등포역의 설치로 서울 남부지역의 공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한 곳이다. 구한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장지역과 영등포역 북부와 영등포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영등포가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기반을 잡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국 최대의 공업지대인 경인 공업지대의 핵심지역이며, 교통의 발달로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공장, 시장, 은행, 유흥 음식점 등이 자리 잡아 서남부 지역의 산업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는 오랫동안 군사기지인 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온 모래밭으로 이용가치가 없었는데, 1970년 여의도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사당, 방송사, 63빌딩, 증권거래소 등이 들어서면서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교통으로는 양화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으며, 공항로와 접하는 교통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서남부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24.57k ㎡이다. 인구는 약 44만 3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영등포구 당산동이다.

서대문구의 사업체 수는 약 1만 7천여 개이며, 안산, 백련산 등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충정지역은 서울 도심부의 외곽을 형성하는 상업 및 업무지구로서의기능을, 가좌지역은 유통과 주거의 기능을, 홍은지역은 상업과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신촌 지역은 서울 부도심의 하나로 상업 지구를 이루고 있으며, 교통으로는 일산, 문산으로 통하는경의선 열차가 지나며, 지하철 2, 3, 5호선이 통과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부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17.6km²이다. 인구는 약 32만 7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이다.

관악구의 사업체 수는 2만 5천7백여 개이며, 운수업과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1960년대 철거민 정착촌의 전형을 이루던 곳이었지만,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거지로의 기능과 녹지, 학교로 구성된 주거 소비형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관악구는 동쪽으로는 동작대로를 경계로 서초구

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관악산의 능선과 시흥대로를 경계로 금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의 중심부를 남부순환도로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29.57km²이다. 인구는 약 54만 8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관악구 봉천동이다.

서초구의 사업체 수는 약 3만 5천여 개이며, 1968년 영동 제1차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다.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늘 푸른 생활환경 속에 노인들이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며, 생활환경 이 편리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서초구는 법조타 운, 외교단지 등이 위치한 법조행정의 중심 지역이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 원, 대한민국 예술원 등이 자리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교통으로는 1960년대 말부터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가 가설되어 도심과 바로 연결 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경부고속철도가 통하게 되고,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등이 자리하는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자 서울 남 부 교통의 관문 지역이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정남쪽에 위치한 구로, 면적은 47k㎡이다. 인구는 약 43만 8천여 명이며, 구청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이다.

3.2 카이제곱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찾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운]	값	자유도	유의확률	유의미
[연령대_6단계] 떼(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58.832a	10	0.00	♦
[연령대_6단계] 때(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52.118a	10	0.00	♦
[연령대_6단계] 쥐(음운체계 - 단모음 '위')	80.779a	10	0.00	♦
[연령대_6단계] 외삼촌(고모음화/단모음 '외')	92.607a	15	0.00	♦
[연령대_6단계] 외삼촌(고모음화/단모음 '외')	62.798a	5	0.00	♦
[연령대_6단계] 더럽다(고모음화/음장)	13.911a	5	0.02	♦
[연령대_6단계] 더럽다(고모음화/음장)	48.958a	10	0.00	♦
[연령대_6단계] 말(膏)이 많다(초분절운소 - 장단/성조)	20.918a	5	0.00	♦
[연령대_6단계] 말(膏)이 많다(초분절운소 - 장단/성조)	29.147a	15	0.02	♦
[연령대_6단계] 못 잊어(ㄴ첨가)	30.464a	10	0.00	♦
[연령대_6단계] 옷 입어(ㄴ첨가)	15.219a	10	0.12	
[연령대_6단계] 맡기다(움라우트/위치동화)	15.112a	10	0.13	
[연령대_6단계] 맡기다(움라우트/위치동화)	81.016a	5	0.00	♦
[연령대_6단계] 밥하고(유기음화/고모음화)	31.712a	5	0.00	♦
[연령대_6단계] 밥하고(유기음화/고모음화)	13.335a	5	0.02	♦
[연령대_6단계] 깨끗하다(유기음화)	39.614a	10	0.00	♦
[연령대_6단계] 원룸(유음화와 ㄹ>ㄴ의 변화)	111.495a	10	0.00	♦
[연령대_6단계] 온라인(유음화와 ㄹ>ㄴ의 변화)	61.193a	10	0.00	♦
[연령대_6단계] 잡아라(모음조화)	45.150a	10	0.00	♦
[연령대_6단계] 맡아라(모음조화)	61.861a	15	0.00	♦
[연령대_6단계] 맑다(자음군단순화)	43.938a	10	0.00	♦
[연령대_6단계] 읽고(자음군단순화)	11.919a	10	0.29	
[연령대_6단계] 짧다(자음군단순화)	67.912a	10	0.00	♦
[연령대_6단계] 펴다('여 > 이'의 변화)	30.822a	10	0.00	♦
[연령대_6단계] 밭이(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18.985a	10	0.04	♦
[연령대_6단계] 꽃이(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58.634a	10	0.00	♦
[연령대_6단계] 여덟이(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19.345a	10	0.04	♦
[연령대_6단계] 잎이(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23.384a	5	0.00	♦
[연령대_6단계] 나뭇잎이(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17.919a	5	0.00	♦
[연령대_6단계] 베개('에 > 이'의 변화에 의한 재구조화)	88.399a	15	0.00	♦
[연령대_6단계] 의사(이중모음 '의'의 변화)	24.450a	10	0.01	♦
[연령대_6단계] 나니까/날으니까(ㄹ말음 용언의 활용)	88.532a	10	0.00	♦

[어휘]	값	자유도	유의확률	유의미
[연령대_6단계] 명절을 쇠다(고유어 소멸)	26.772a	10	0.00	♦
[연령대_6단계] 쇠다(명절을)	14.378a	5	0.01	♦
[연령대_6단계] 쇠다(명절을)	28.396a	5	0.00	♦
[연령대_6단계] 서리(고유어 소멸)	63.376a	55	0.21	
[연령대_6단계] 서리	5.990a	5	0.31	
[연령대_6단계] 서리	19.604a	5	0.00	♦
[연령대_6단계] 다르다/틀리다(방언의 확산)	43.438a	5	0.00	♦
[연령대_6단계] 다르다-인지	11.982a	5	0.04	•
[연령대_6단계] 다르다-사용	21.789a	5	0.00	♦
[연령대_6단계] 누다/싸다(어휘의 혼동)	26.241a	5	0.00	♦
[연령대_6단계] 누다-인지	4.571a	5	0.47	
[연령대_6단계] 누다-사용	12.034a	5	0.03	♦
[연령대_6단계] 썰다/자르다(어휘의 혼동)	7.075a	10	0.72	
[연령대_6단계] 썰다-인지	2.972a	5	0.70	
[연령대_6단계] 썰다-사용	2.871a	5	0.72	
[연령대_6단계] 가렵다/간지럽다(어휘의 혼동)	14.238a	5	0.01	♦
[연령대_6단계] 가렵다-인지	.a			
[연령대_6단계] 가렵다-사용	24.974a	5	0.00	♦
[연령대_6단계] 주다/달다(어휘의 혼동)	13.111a	5	0.02	♦
[연령대_6단계] 주다-인지	3.056a	5	0.69	
[연령대_6단계] 주다-사용	7.600a	5	0.18	
[연령대_6단계] 손수(어휘의 혼동)	39.516a	15	0.00	♦
[연령대_6단계] 손수-인지	3.359a	5	0.65	
[연령대_6단계] 손수-사용	14.348a	5	0.01	♦
[연령대_6단계] 밥/진지(경어)	13.417a	10	0.20	
[연령대_6단계] 밥-인지	2.972a	5	0.70	
[연령대_6단계] 밥-사용	2.236a	5	0.82	
[연령대_6단계] 아프다/편찮다(경어)	7.030a	5	0.22	
[연령대_6단계] 아프다-인지	.802a	5	0.98	
[연령대_6단계] 아프다-사용	8.713a	5	0.12	
[연령대_6단계] 부추(표준어의 확산, 방언의 인지)	45.089a	30	0.04	♦
[연령대_6단계] 표준어형(부추)-인지	11.269a	5	0.05	♦
[연령대_6단계] 표준어형(부추)-사용	7.255a	5	0.20	
[연령대_6단계] 비밀번호 → 비번(줄임말)	71.596a	10	0.00	♦
[연령대_6단계] 비번-인지	158.245a	5	0.00	♦
[연령대_6단계] 비번-사용	73.937a	5	0.00	♦
[연령대_6단계] 선생님 → 샘/쌤(줄임말)	27.970a	10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선생님)-인지	92.527a	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선생님)-사용	61.682a	5	0.00	•

[연령대_6단계] 물냉면 → 물냉(줄임말)	46.014a	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물냉면)-인지	20.964a	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물냉면)-사용	26.610a	5	0.00	♦
[연령대_6단계] 파리바게트 → 파바(줄임말)	119.988a	1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파리바게트)-인지	79.920a	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파리바게트)-사용	69.594a	5	0.00	♦
[연령대_6단계] 휴대전화(순화어)	23.733a	20	0.25	
[연령대_6단계] 순화어(휴대전화)-인지	6.030a	5	0.30	
[연령대_6단계] 순화어(휴대전화)-사용	13.357a	5	0.02	♦
[연령대_6단계] 집단 따돌림(순화어)	14.706a	20	0.79	
[연령대_6단계] 왕따-인지	6.224a	5	0.29	
[연령대_6단계] 왕따-사용	3.126a	5	0.68	
[연령대_6단계] 텔레비전(외래어)	147.139a	25	0.00	♦
[연령대_6단계] 본말(텔레비전)-인지	5.359a	5	0.37	
[연령대_6단계] 본말(텔레비전)-사용	.905a	5	0.97	
[연령대_6단계] 단무지(외래어)	70.305a	15	0.00	♦
[연령대_6단계] 순화어(단무지)-인지	45.493a	5	0.00	♦
[연령대_6단계] 순화어(단무지)-사용	25.120a	5	0.00	♦
[연령대_6단계] 히야시(외래어)	99.857a	10	0.00	♦
[연령대_6단계] 외래어(히야시 등)-인지	153.172a	10	0.00	♦
[연령대_6단계] 외래어(히야시 등)-사용	63.883a	10	0.00	♦
[연령대_6단계] 아빠/아버지(호칭)	147.980a	15	0.00	♦
[연령대_6단계] 아빠-인지	4.277a	5	0.51	
[연령대_6단계] 아빠-사용	23.874a	5	0.00	♦
[연령대_6단계] 엄마/어머니(호칭)	71.689a	10	0.00	♦
[연령대_6단계] 엄마-인지	.a			
[연령대_6단계] 엄마-사용	4.815a	5	0.44	
[연령대_6단계] 형/오빠(호칭)	120.307a	15	0.00	♦
[연령대_6단계] 형/오빠-인지	5.515a	5	0.36	
[연령대_6단계] 형/오빠-사용	20.786a	5	0.00	♦
[연령대_6단계] 여보(호칭)	68.277a	25	0.00	♦
[연령대_6단계] 여보-인지	7.040a	5	0.22	
[연령대_6단계] 여보-사용	36.679a	5	0.00	♦
[연령대_6단계] 여보(호칭)	60.685a	25	0.00	♦
[연령대_6단계] 여보-인지	9.948a	5	0.08	
	37.536a	15	0.00	•

	T T			
[연령대_6단계] 아비/아범(지칭)	63.440a	20	0.00	♦
[연령대_6단계] 아비/아법-인지	8.999a	10	0.53	
[연령대_6단계] 아비/아범-사용	21.521a	5	0.00	♦
[연령대_6단계] 집사람(지칭)	61.146a	20	0.00	♦
[연령대_6단계] 집사람-인지	12.518a	15	0.64	
[연령대_6단계] 집사람-사용	8.726a	5	0.12	
[연령대_6단계] 사장님(호칭)	55.964a	15	0.00	♦
[연령대_6단계] 사장님-인지	19.830a	5	0.00	♦
[연령대_6단계] 사장님-사용	4.464a	5	0.49	
[연령대_6단계] 언니(호칭)	97.099a	25	0.00	♦
[연령대_6단계] 언니-인지	9.283a	10	0.51	
[연령대_6단계] 언니-사용	7.683a	5	0.18	
[연령대_6단계] 너무(의미 확장)	44.374a	25	0.01	♦
[연령대_6단계] 너무-인지	10.656a	10	0.39	
[연령대_6단계] 너무-사용	3.546a	5	0.62	
[연령대_6단계] 착하다(의미 확장)	16.920a	10	0.08	
[연령대_6단계] 착하다-인지	107.343a	5	0.00	♦
[연령대_6단계] 착하다-사용	28.274a	5	0.00	♦
[연령대_6단계] 섞다(의미 확장)	58.772a	10	0.00	♦
[연령대_6단계] 섞다-인지	9.948a	5	0.08	
[연령대_6단계] 섞다-사용	7.613a	5	0.18	
[연령대_6단계] 언중유골(관용어)	57.114a	10	0.00	♦
[연령대_6단계] 언중유골-인지	56.616a	10	0.00	•
[연령대_6단계] 언중유골-사용	7.438a	10	0.68	
[연령대_6단계] 가는 날이 장날(속담)	18.072a	15	0.26	
[연령대_6단계] 긍정의미-인지	7.283a	5	0.20	
[연령대_6단계] 긍정의미-사용	15.674a	5	0.01	*
[연령대_6단계] 약방에 감초(속담)	49.628a	15	0.00	*
[연령대_6단계] 사람에게-인지	19.246a	5	0.00	*
[연령대_6단계] 사람에게-사용	56.326a	5	0.00	*

[문법]	값	자유도	유의확률	유의미
[연령대_6단계] 격식제/비격식체 1(경어법)	.580a	5	0.99	
[연령대_6단계] 안녕하세요-인지	7.630a	10	0.67	
[연령대_6단계] 안녕하세요-사용	4.996a	5	0.42	
[연령대_6단계] 격식제/비격식체 2(경어법)	12.899a	5	0.02	♦
[연령대_6단계] 주세요-인지	3.094a	5	0.69	
[연령대_6단계] 주세요-사용	2.774a	5	0.74	
[연령대_6단계] -이세요(경어법)	14.460a	10	0.15	
[연령대_6단계] 이에요-인지	33.162a	10	0.00	•
[연령대_6단계] 이에요-사용	3.103a	5	0.68	
[연령대_6단계] 들어가실게요(경어법)	17.276a	10	0.07	
[연령대_6단계] 들어가세요-인지	26.514a	5	0.00	♦
[연령대_6단계] 들어가세요-사용	22.759a	5	0.00	♦
[연령대_6단계] 하자요(경어법)	29.478a	15	0.01	♦
[연령대_6단계] 하자-인지	33.058a	5	0.00	♦
[연령대_6단계] 하자-사용	10.740a	5	0.06	
[연령대_6단계] 가니?(의문형 어미)	24.938a	15	0.05	
[연령대_6단계] 가니-인지	7.146a	10	0.71	
[연령대_6단계] 가니-사용	16.338a	5	0.01	♦
[연령대_6단계] 네/아니오(부정의문문)	42.980a	20	0.00	♦
[연령대_6단계] 네-인지	7.109a	5	0.21	
[연령대_6단계] 네-사용	11.589a	10	0.31	
[연령대_6단계] 아니오-인지	6.030a	5	0.30	
[연령대_6단계] 아니오-사용	4.958a	5	0.42	
[연령대_6단계] 해 줄 수 있니?/해 주지 않겠니?(부정의문문)	9.702a	10	0.47	
[연령대_6단계] 긍정 의문-인지	2.972a	5	0.70	
[연령대_6단계] 긍정 의문-사용	11.463a	5	0.04	♦
[연령대_6단계] 안 피곤하다/피곤하지 않다.(부정문)	32.797a	10	0.00	•
[연령대_6단계] 단형부정-인지	3.432a	5	0.63	
[연령대_6단계] 단형부정-사용	5.870a	5	0.32	
[연령대_6단계] 말다(명령문)	12.162a	10	0.27	
[연령대_6단계] 마라-인지	4.910a	5	0.43	
	6.596a	10	0.76	

[담화]	값	자유도	유의확률	유의미
[연령대_6단계] 아니에요(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94.539a	40	0.00	*
[연령대_6단계] 아니에요(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61.330a	25	0.00	*
[연령대_6단계] 감사해요/고맙습니다(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80.093a	35	0.00	•
[연령대_6단계]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요청/부탁 표현)	68.134a	30	0.00	•
[연령대_6단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청/부탁에 대한 거절 표현)	44.171a	30	0.05	•
[연령대_6단계] 괜찮아요(호의에 대한 거절 표현)	66.250a	25	0.00	•
[연령대_6단계]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42.757a	30	0.06	
[연령대_6단계] 부장님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	70.540a	45	0.01	•
[연령대_6단계] 음식이 너무 짠데요 외(불만 표현)	21.506a	15	0.12	
[연령대_6단계] 알았어/알겠어(승낙 표현)	19.757a	10	0.03	•
[연령대_6단계] 저기요/여기요(호출 표현)	44.094a	15	0.00	•
[연령대_6단계] 것 같아요(비확정적 표현)	27.917a	15	0.02	•

3.3 항목별 분석 - 음운/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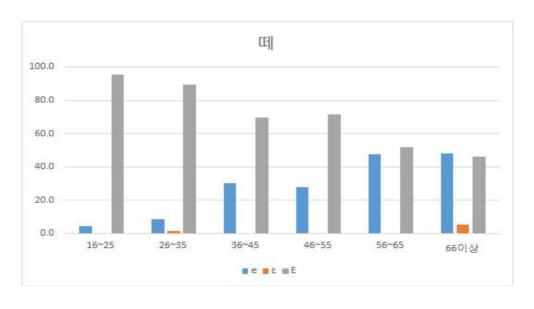
집단1은 $16\sim25$ 세, 집단2는 $26\sim35$ 세, 집단3은 $36\sim45$ 세, 집단4는 $46\sim55$ 세이며, 집단5는 $56\sim65$ 세, 집단6은 66세 이상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음운 변이의 양상을 살핀다.

[음01], [음02] - '에[e], 애[ɛ]'의 음소 대립, '떼 : 때'

이 항목은 '떼'와 '때'를 각각 'e'와 ' ϵ '로 발음하는지 중화된 모음('E')으로 발음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다. 다음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에 비례하여 대체로 'e'('떼'의 경우)와 ' ϵ '('때'의 경우)의 발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e와 ϵ 가 중화된 E는 모음 e, ϵ 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연령	е	3	E	합계
16~25	3(4.3)	0(0.0)	66(95.7)	69(100)
26~35	5(8.8)	1(1.8)	51(89.4)	57(100)
36~45	10(30.3)	0(0.0)	23(69.7)	33(100)
46~55	18(28.1)	0(0.0)	46(71.9)	64(100)
56~65	11(47.8)	0(0.0)	12(52.2)	23(100)
66 이상	26(48.1)	3(5.6)	25(46.3)	54(100)
합계	73(24.3)	4(1.3)	223(74.3)	3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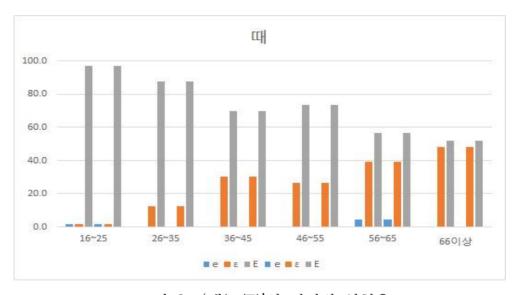
<표 1> '떼(e/E)'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1> '떼(e/E)'의 연령별 실현율

연령	е	3	E	합계
16~25	1(1.4)	1(1.4)	67(97.2)	69(100)
26~35	0(0.0)	7(12.3)	50(87.7)	57(100)
36~45	0(0.0)	10(30.3)	23(69.7)	33(100)
46~55	0(0.0)	17(26.6)	47(73.4)	64(100)
56~65	1(4.3)	9(39.2)	13(56.5)	23(100)
66 이상	0(0.0)	26(48.1)	28(51.9)	54(100)
합계	2(0.7)	70(23.3)	228(76.0)	300(100)

<표 2> '때(ε/E)'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 '때(ε/E)'의 연령별 실현율

e와 ϵ 의 대립을 인식하는 제보자가 집단 $4(46\sim55)$ 에서 1/4(28%) 정도이며 집단 $6(66\$ 이상)에서는 대략 1/2(48%) 정도다. 지난 2014년의 평택 조사에서는 집단6의 실현율(50%)보다 집단 $5(56\sim65)$ 의 실현율(100%)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러한 결과가 표본수가 적었던 데에 비롯된 오해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음03], [음09], [음04] - 고모음화, '외삼촌>외삼춘, 밥하고>밥하구, 더럽다>드럽다'

우리가 조사한 고모음화는 '오>우'와 '어>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후설모음의 고모음화는 중부 방언에서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삼촌>외삼춘'의 경우, 고모음화의 실현 빈도가 32% 정도로 나타나 2014 년 평택 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밥하고>밥하구'의 경우에는, 그 실현 빈도가 9%에 그치고 있어 2014년의 17%에 크게 못 미친다.

연령	-1-	Т	합계
16~25	59(85.5)	10(14.5)	69(100)
26~35	51(89.5)	6(10.5)	57(100)
36~45	23(69.7)	10(30.3)	33(100)
46~55	39(60.9)	25(39.1)	64(100)
56~65	15(65.2)	8(34.8)	23(100)
66 이상	15(27.8)	39(72.2)	54(100)
합계	202(67.3)	98(32.7)	300(100)

<표 3> '외삼촌(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3> '외삼촌(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연령	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一	합계
16~25	62(89.9)	7(10.1)	69(100)
26~35	54(94.7)	3(5.3)	57(100)
36~45	30(90.9)	3(9.1)	33(100)
46~55	61(95.3)	3(4.7)	64(100)
56~65	23(100.0)	0(0.0)	23(100)
66 이상	43(79.6)	11(20.4)	54(100)
합계	273(91.0)	27(9.0)	300(100)

<표 4> '밥하고(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4> '밥하고(ㅗ/ㅜ)'의 연령별 실현율

또 고모음화 실현율에서 2014년의 평택 조사에서는 세대별 격차가 매우 컸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2014년의 경우 집단 1(16~25)과 집단2(26~35) 즉, 35세 이하에서 '외삼춘, 밥하구'의 출현 빈도가 0%인 반면 집단6(66 이상)에서는 그 빈도가 85%에 이르렀으나, 올해 조사의 경우 집단6에서만 70%대의 실현율을 보일 뿐 다른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른 비율을 드러낸다. 다만 '밥하고>밥하구'(9%)보다 '외삼촌>외삼춘'(32%) 쪽에서 훨씬 더 높은 고모음화 실현을 보이는 점은 지난 번 조사에서와 동일하다. 이는 '외삼촌'이 고빈도 단어 '삼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모음화는 '오>우'뿐 아니라 '어>으'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두에 장음 'a:'가 실현될 경우이다.

연령	1	_	합계
16~25	64(92.8)	5(7.2)	69(100)
26~35	55(96.5)	2(3.5)	57(100)
36~45	29(87.9)	4(12.1)	33(100)
46~55	59(92.2)	5(7.8)	64(100)
56~65	22(95.7)	1(4.3)	23(100)
66 이상	42(77.8)	12(22.2)	54(100)
합계	271(90.3)	29(9.7)	300(100)

<표 5> '더럽다(ㅓ/一)'의 연령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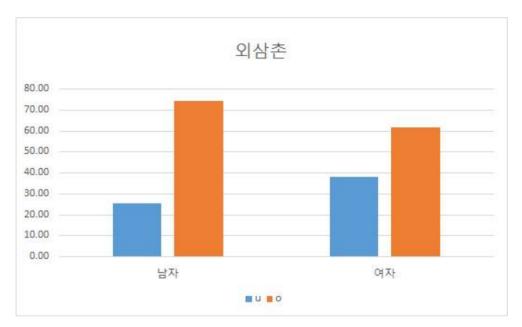
<그림 5> '더럽다(ㅓ/一)'의 연령별 실현율

'더럽다>드럽다'는 '밥하고>밥하구'와 유사하다. 고모음화 실현율이 9%대에 머물러 있으며 집단6(66세 이상)에서만 70%대의 실현율을 보일 뿐 다른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른 비율(10% 이내)을 드러낸다. 이로써 올해의 결과는 매우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2014년 평택 조사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한편, 고모음화는 성별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성별	_1_	т	합계
남자	97(74.6)	33(25.4)	130(100)
여자	105(61.8)	65(38.2)	170(100)
합계	202(67.3)	98(32.7)	300(100)

<표 6> '외삼촌(ㅗ/ㅜ)'의 성별 실현율



<그림 6> '외삼촌(ㅗ/ㅜ)'의 성별 실현율

성별	1	丁	합계
남	119(91.5)	11(8.5)	130(100)
여	154(90.6)	16(9.4)	170(100)
합계	273(91.0)	27(9.0)	300(100)

<표 7> '밥하고(ㅗ/ㅜ)'의 성별 실현율



<그림 7> '밥하고(ㅗ/ㅜ)'의 성별 실현율

<표 6>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게서 '외삼춘, 밥하구'의 고모음화가 더 자주 나타났다. 특히 '외삼촌'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모음화의실현율에서 10% 이상 높다(남성 25.4%, 여성38.2%). 이러한 경향은 '더럽다'으로답다'의 고모음화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성별	Ŧ	_	합계
남	122(93.8)	8(6.2)	130(100)
여	149(87.6)	21(12.4)	170(100)
합계	271(90.3)	29(9.7)	300(100)

<표 8> '더럽다(ㅓ/ㅡ)'의 성별 실현율



<그림 8> '더럽다(ㅓ/一)'의 성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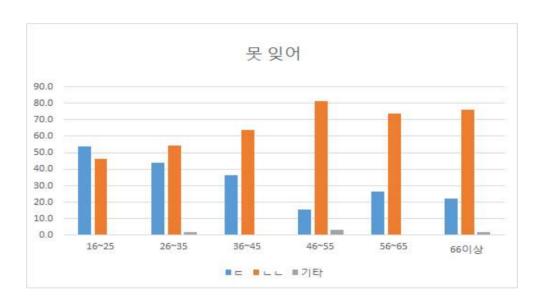
정리하자면, 중부 방언의 고모음화(오>우, 어>으)는 노인층(집단6)에서 매우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70% 이상의 실현율)이다.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대체로 10% 이내의 실현율을 보인다. 물론 '외삼촌'처럼 높은 실현율(30% 정도)을 보이는 단어도 나타난다. 아울러 중부 방언의 고모음화가 성별 요소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모음화를 더 잘 실현시키는 것이다.

[음06], [음07] - ㄴ 첨가, '못 잊어', '옷 입어'

2014년 평택 조사에서는 '못 잊어'를 통해 'ㄴ' 첨가 현상을 살폈는데 37% 정도의 실현율을 보여 예상과 달리 빈도가 낮으며 40대를 기점으로 실현율의 명확한 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실현율이 55%(옷 입어)에서 65%(못 잊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령	С	LL	기타	합계
16~25	37(53.6)	32(46.4)	0(0.0)	69(100)
26~35	25(43.9)	31(54.4)	1(1.7)	57(100)
36~45	12(36.4)	21(63.6)	0(0.0)	33(100)
46~55	10(15.6)	52(81.3)	2(3.1)	64(100)
56~65	6(26.1)	17(73.9)	0(0.0)	23(100)
66 이상	12(22.2)	41(75.9)	1(1.9)	54(100)
합계	102(34.0)	194(64.7)	4(1.3)	3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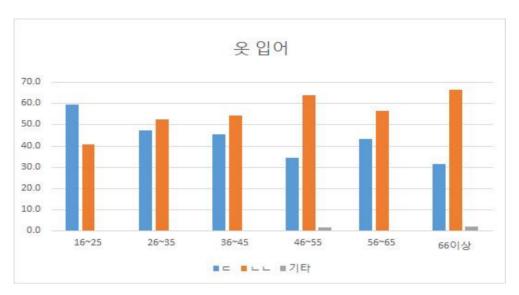
<표 9> '못 잊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9> '못 잊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연령	С	LL	기타	합계
16~25	41(59.4)	28(40.6)	0(0.0)	69(100)
26~35	27(47.4)	30(52.6)	0(0.0)	57(100)
36~45	15(45.5)	18(54.5)	0(0.0)	33(100)
46~55	22(34.4)	41(64.1)	1(1.5)	64(100)
56~65	10(43.5)	13(56.5)	0(0.0)	23(100)
66 이상	17(31.5)	36(66.7)	1(1.8)	54(100)
합계	132(44.0)	166(55.3)	4(0.7)	300(100)

<표 10> '옷 입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10> '옷 입어(ㄷ/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ㄴ' 첨가 현상은 '옷 입어'에 비해 '못 잊어'에서 10% 정도 더 잘 일어난다. 이는 '못 잊어'의 단어 연쇄가 '옷 입어'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첨가는 단어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당연히 연결되는 단어 사이의 긴밀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세대별 실현율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위 표에서 보듯 40%대의 실현율을 보이는 집단1을 제1그룹(16세~25세)으로, 50%대의 실 현율을 보이는 집단2와 집단3을 제2그룹(26세~45세), 그리고 55% 이상의 실 현율을 보이는 집단4, 5, 6을 제3그룹(46세 이상)으로 묶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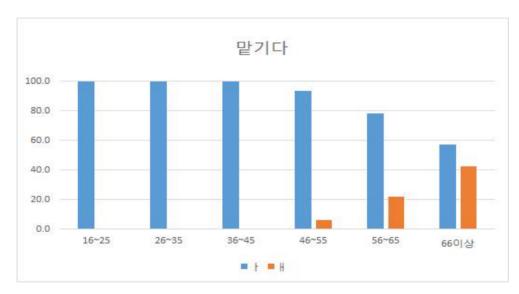
정리하면, 중부 방언의 'L' 첨가 현상은 60% 이상의 실현을 보이는 고빈도 현상이다. 40대 중반 이상의 세대에서 매우 활발하나 청년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실현율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또 이 현상은 단어 연결의 긴밀성에 비례하여 그 실현율이 좌우된다.

[음08] - 움라우트, '맏기다'

청년층에서는 움라우트형이 많이 사라졌지만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움라우트형은 간간이 확인된다. 집단4(46~55)에서 6%, 집단5(56~65)에서 21%, 집단6(66 이상)에서 42%의 실현율을 보이므로 움라우트가 세대와 밀접히 관련된현상임을 알 수 있다.

연령	ŀ	H	합계
16~25	69(100.0)	0(0.0)	69(100)
26~35	57(100.0)	0(0.0)	57(100)
36~45	33(100.0)	0(0.0)	33(100)
46~55	60(93.8)	4(6.2)	64(100)
56~65	18(78.3)	5(21.7)	23(100)
66 이상	31(57.4)	23(42.6)	54(100)
합계	268(89.3)	32(10.7)	300(100)

<표 11> '맡기다(아/애)'의 연령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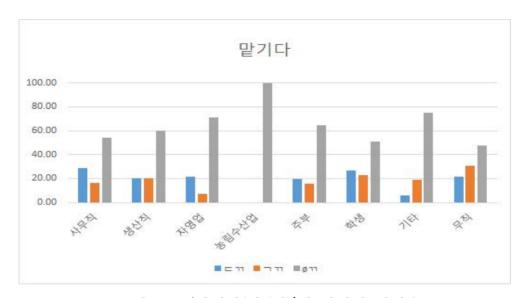
<그림 11> '맡기다(아/애)'의 연령별 실현율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전체 비율(10% 정도) 또는 45세 이하의 집단에서 움라우트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0%)는 사실은 2014년도 조사와 거의 동일하다. 움라우트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움라우트 실현을 '직업'요소와 관련을 지을 때 '무직 (47.8%), 자영업(28.6%), 주부(14.5%)'가 평균 이상의 움라우트 실현율을 보인 다는 점이다(1명의 농림수산업은 제외).

직업	ŀ	H	합계
사무직	85(94.0)	5(6.0)	90(100)
생산직	5(100.0)	0(0.0)	5(100)
자영업	10(71.4)	4(28.6)	14(100)
농림수산업	0(0.0)	1(100.0)	1(100)
주부	65(85.5)	11(14.5)	76(100)
학생	75(100.0)	0(0.0)	75(100)
무직	12(52.2)	11(47.8)	23(100)
기타	16(100.0)	0(0.0)	16(100)
합계	268(89.3)	32(10.7)	300(100)

<표 12> '맡기다(아/애)'의 직업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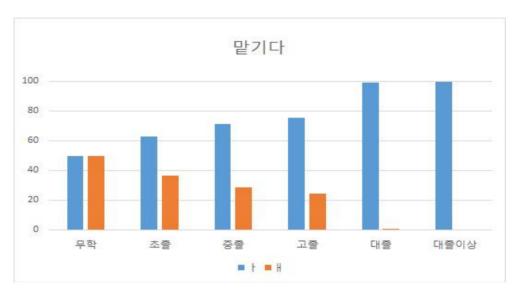


<그림 12> '맡기다(아/애)'의 직업별 실현율

이에 비해 '사무직(6%)'이나 '생산직(0%)' 등 기업에 취직해 있는 계층은 평균 이하의 실현율을 보인다. '학생(0%)'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일정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계층들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움라우트는 직업보다는 학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학력별 실현율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학력	ŀ	H	합계
무학	5(50.0)	5(50.0)	10(100)
초졸	12(63.2)	7(36.8)	19(100)
중졸	10(71.4)	4(28.6)	14(100)
고졸	46(75.4)	15(24.6)	61(100)
대졸	145(85.5)	1(14.5)	146(100)
대졸 초과	50(100.0)	0(0.0)	50(100)
합계	268(89.3)	32(10.7)	300(100)

<표 13> '맡기다(아/애)'의 학력별 실현율



<그림 13> '맡기다(아/애)'의 학력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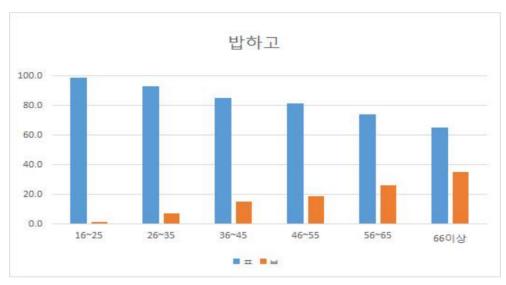
위 표에는 움라우트 실현율이 학력과 정확히 연관됨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로써 움라우트는 '직업'이 아니라 '학력'과 관련된 현상임에 틀림없다.이 외의 항목에서 '직업'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 변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음09], [음10] - 유기음화, '밥하고', '깨끗하다'

2014년 평택 조사에서 유기음화의 실현율은 90% 이상이었다. 하지만 표본 수를 늘린 올해의 서울 조사에서는 유기음화의 비율이 이보다 조금 낮다.

연령	п	н	합계
16~25	68(98.6)	1(1.4)	69(100)
26~35	53(93.0)	4(7.0)	57(100)
36~45	28(84.8)	5(15.2)	33(100)
46~55	52(81.3)	12(18.7)	64(100)
56~65	17(73.9)	6(26.1)	23(100)
66 이상	35(64.8)	19(35.2)	54(100)
합계	253(84.3)	47(15.7)	3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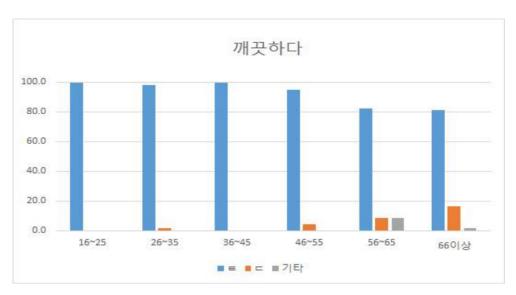
<표 14> '밥하고(ㅍ/ㅂ)'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14> 밥하고(ㅍ/ㅂ)'의 연령별 실현율

연령	E	Г	기타	합계
16~25	69(100.0)	0(0.0)	0(0.0)	69(100)
26~35	56(98.2)	1(1.8)	0(0.0)	57(100)
36~45	33(100.0)	0(0.0)	0(0.0)	33(100)
46~55	61(95.3)	3(4.7)	0(0.0)	64(100)
56~65	19(82.6)	2(8.7)	2(8.7)	23(100)
66 이상	44(81.5)	9(16.7)	1(1.9)	54(100)
합계	282(94.0)	15(5.0)	3(1.0)	300(100)

<표 15> '깨끗하다(ㅌ/ㄷ)'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15> '깨끗하다(ㅌ/ㄷ)'의 연령별 실현율

특히 집단6(66 이상)에서 나타나는 비유기음화의 비율은 주목할 만하다. '밥하고'를 '바바고'로 발음하는 비율이 35%, '깨끗하다'를 '깨끄다다'로 발음하는 비율이 17%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기음화는 전라도 및 경상남도 방언의 특징이므로 평택과 달리 서울에 그러한 방언 특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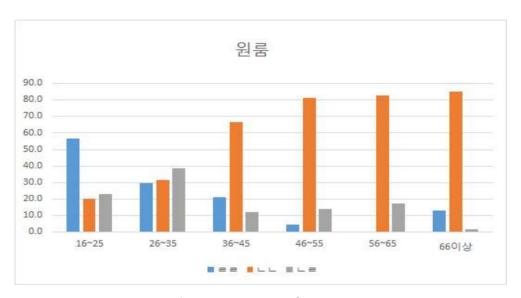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출신에 따른 주민 구성에서 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택 지역의 주민은 거의 대부분 경기도 출신이지만, 서울 지역은 서울 출신의 주민뿐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이주민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2세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주민이 섞여 있어 평택과 서울 사이의 실현율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밥하고'(명사+조사)와 '깨끗하다'(어근+접사)에서 나타나는 실현율의 차이도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11], [음12] - 유음화, '원룸', '온라인'

'원룸', '온라인'은 유음화형과 치조비음화형이 공존한다. 먼저 '원룸'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치조비음화형('원눔')으로의 실현이 지배적이다(57%). 연령이 적을수록 'ㄴㄹ'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재미있다.

연령	근 근	LL	ㄴㄹ	합계
16~25	39(56.5)	14(20.3)	16(23.2)	69(100)
26~35	17(29.8)	18(31.6)	22(38.6)	57(100)
36~45	7(21.2)	22(66.7)	4(12.1)	33(100)
46~55	3(4.7)	52(81.3)	9(14.1)	64(100)
56~65	0(0.0)	19(82.6)	4(17.4)	23(100)
66 이상	7(13.0)	46(85.2)	1(1.9)	54(100)
합계	73(24.3)	171(57.0)	56(18.7)	300(100)

<표 16> '원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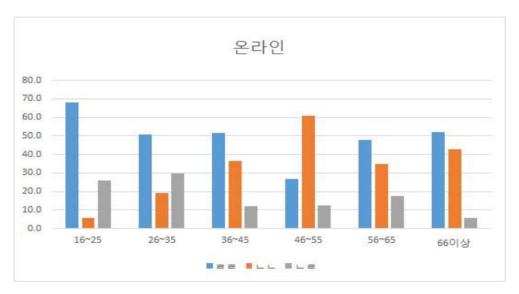
<그림 16> '원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세대별로 볼 때 집단1(16~25)에서는 유음화형('월룸')이 압도적이나(56%) 집 단2(26~35)에서부터 치조비음화형('원눔')이 많아지기 시작해 집단4(46~55)를 넘어서면 치조비음화형이 압도적이 된다(80% 정도). 다만 유음화형만 보면 집 단4(46~55), 집단5(56~65)가 그 위아래 세대보다 유음화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는 2014년 평택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었다.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또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재조사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은 '원룸'과 양상이 좀 다르다. 이 단어는 유음화형('올라인')으로의 실현이 지배적이다(50%).

연령	근 근	LL	LZ	합계
16~25	47(68.1)	4(5.8)	18(26.1)	69(100)
26~35	29(50.9)	11(19.3)	17(29.8)	57(100)
36~45	17(51.5)	12(36.4)	4(12.1)	33(100)
46~55	17(26.6)	39(60.9)	8(12.5)	64(100)
56~65	11(47.8)	8(34.8)	4(17.4)	23(100)
66 이상	28(51.9)	23(42.6)	3(5.6)	54(100)
합계	149(49.7)	97(32.3)	54(18.0)	300(100)

<표 17> '온라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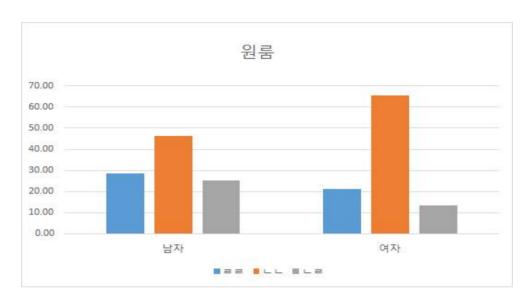
<그림 17> '온라인(ㄹㄹ/ㄴㄴ)'의 연령별 실현율

세대별로 볼 때 집단4(46~55)가 그 위아래 세대보다 유음화의 비율이 낮다 ('원룸'의 경우와 유사).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음화형이 치조비음화형보다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그러므로 '원룸'과 '온라인'은 유음화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단어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관여한 것인지 재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성별과 관련지어 살필 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성별	근 근	LL	Lг	합계
남자	37(28.5)	60(46.2)	33(25.3)	130(100)
여자	36(21.2)	111(65.3)	23(13.5)	170(100)
합계	73(24.3)	171(57)	56(18.7)	300(100)

<표 18> '원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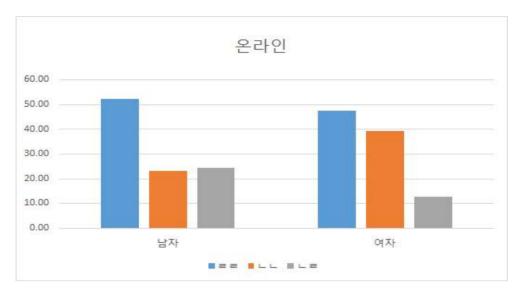


<그림 18> '원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성별	2 근	LL	L己	합계
남자	68(52.3)	30(23.1)	32(24.6)	130(100)
여자	81(47.6)	67(39.5)	22(12.9)	170(100)
합계	149(49.7)	97(32.3)	54(18.0)	300(100)

<표 19> '온라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원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치조비음화형을 15% 이상 많이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토대로 판단할 때 2015년 서울 조사에서 남녀의 절대적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남자:여자=43.3:56.7)은 '유음화/치조비음화'에 대한 연령별 조사의 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제보자 수를 남녀 동등하게 하여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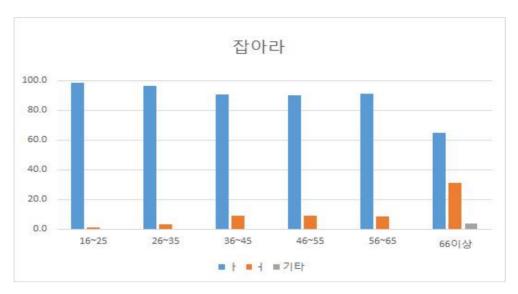
<그림 19> '온라인(ㄹㄹ/ㄴㄴ)'의 성별 실현율

[음13], [음14] - 모음조화, '잡아라', '맡아라'

중부 방언에서는 '아' 말음 폐음절 어간에 '-아'계 어미보다 '-어'계 어미가 결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예상과 달리 '잡어라'(10%)와 '맡어라'(12%)가 10%대에 그쳤다. 이는 2014년 평택 조사(6%)에 서도 비율은 약간 더 낮지만 마찬가지였다.

연령	ŀ	1	기타	합계
16~25	68(98.6)	1(1.4)	0(0.0)	69(100)
26~35	55(96.5)	2(3.5)	0(0.0)	57(100)
36~45	30(90.9)	3(9.1)	0(0.0)	33(100)
46~55	58(90.6)	6(9.4)	0(0.0)	64(100)
56~65	21(91.3)	2(8.7)	0(0.0)	23(100)
66 이상	35(64.8)	17(31.5)	2(3.7)	54(100)
합계	267(89.0)	31(10.3)	2(0.7)	300(100)

<표 20> '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0> '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연령	ŀ	1	기타	합계
16~25	67(97.1)	2(2.9)	0(0.0)	69(100)
26~35	55(96.4)	1(1.8)	1(1.8)	57(100)
36~45	31(93.9)	2(6.1)	0(0.0)	33(100)
46~55	57(89.1)	7(10.9)	0(0.0)	64(100)
56~65	19(82.6)	4(17.4)	0(0.0)	23(100)
66 이상	32(59.3)	22(40.7)	0(0.0)	54(100)
합계	261(87.0)	37(12.3)	1(0.3)	300(100)

<표 21> '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1> '맡아라(아/어)'의 연령별 실현율

위의 세대별 실현율 표를 보면, '잡어라'의 경우 집단5(56~65)까지는 10%이내로 미미하다가 집단6(66 이상)에서 30%에 이르며 '맡어라'의 경우 집단4부터 10%를 넘어서다가 집단6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제법 나타남을 알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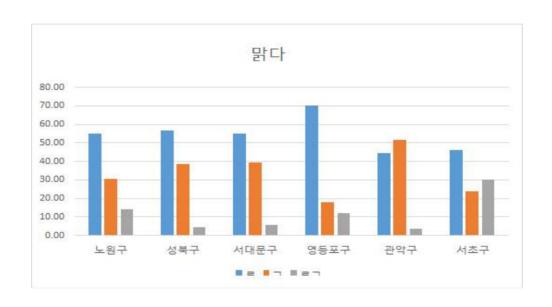
요컨대, 중부 방언에서 '아' 말음 폐음절 어간에는 60대 이상에서만 '잡어라' 와 '맡어라'처럼 '-어'계 어미가 결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하의 세대에서 '잡아라, 맡아라' 계통을 많이 쓰는 것은 교육의 영향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물론 조사 상황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표준 발음을 발화한 것일 수도 있다. 좀 더 정밀하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음15], [음16], [음17] - 자음군단순화, '맑다', '읽고', '짧다'

'맑다, 읽고, 짧다'의 표준 발음은 각각 '[막따], [일꼬], [짤따]'이다. 이에 대해 '지역'다시 말해 제보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발견된다.

지역	근	٦	리기	합계
노원구	27(55.1)	15(30.6)	7(14.3)	49(100)
성북구	25(56.8)	17(38.6)	2(4.6)	44(100)
서대문구	28(54.9)	20(39.2)	3(5.9)	51(100)
영등포구	35(70.0)	9(18.0)	6(12.0)	50(100)
관악구	25(44.6)	29(51.8)	2(3.6)	56(100)
서초구	23(46.0)	12(24.0)	15(30.0)	50(100)
합계	163(54.3)	102(34.0)	35(11.7)	3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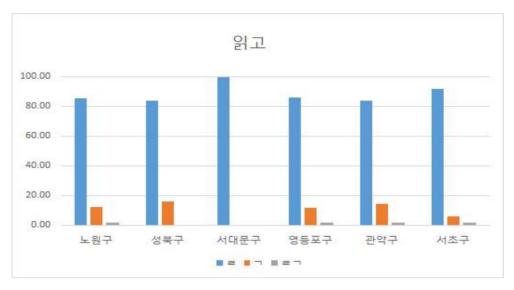
<표 22> '맑다(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그림 22> '맑다(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지역	己	٦	리기	합계
노원구	42(85.7)	6(12.2)	1(2)	49(100.0)
성북구	37(84.1)	7(15.9)	0(0)	44(100.0)
서대문구	51(100)	0(0)	0(0)	51(100.0)
영등포구	43(86)	6(12)	1(2)	50(100.0)
관악구	47(83.9)	8(14.3)	1(1.8)	56(100.0)
서초구	46(92)	3(6)	1(2)	50(100.0)
합계	266(88.7)	30(10)	4(1.3)	3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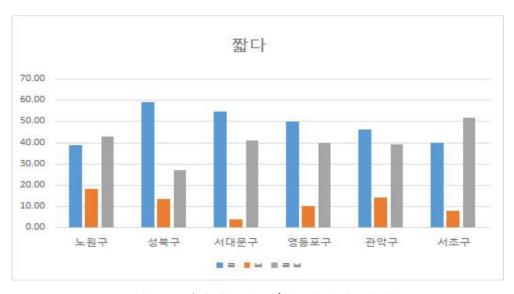
<표 23> '읽고(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그림 23> '읽고(ㄹ/ㄱ)'의 지역별 실현율

지역	ㄹ	н	크出	합계
노원구	19(38.8)	9(18.4)	21(42.9)	49(100.0)
성북구	26(59.1)	6(13.6)	12(27.3)	44(100.0)
서대문구	28(54.9)	2(3.9)	21(41.2)	51(100.0)
영등포구	25(50)	5(10)	20(40)	50(100.0)
관악구	26(46.4)	8(14.3)	22(39.3)	56(100.0)
서초구	20(40)	4(8)	26(52)	50(100.0)
합계	144(48)	34(11.3)	122(40.7)	300(100.0)

<표 24> '짧다(ㄹ/ㅂ)'의 지역별 실현율



<그림 24> '짧다(г/н)'의 지역별 실현율

이 단어들의 경상도식 발음은 '[말따], [일꼬], [짤따]', 전라도식 발음은 '[막따], [익꼬], [짭따]'인데 유독 관악구 지역에서 '[막따](52%), [익꼬](14%), [짭따](14%)'의 실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관악구에 전라도에서 이주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주민의 출신 지역별 분포가 확인되면 아마도 이러한 언어 사실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성북구'도 전라도 출신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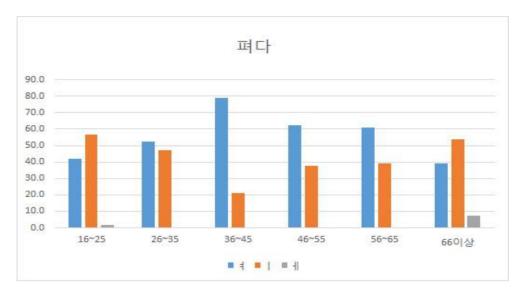
이와 달리 '[막따], [익꼬], [짭따]'의 실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서초구([막따] 24%, [익꼬] 6%, [짭따] 8%)나 서대문구([막따] 39%, [익꼬] 0%, [짭따] 4%)에는 전라도 출신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대문구에서 [막따]의 실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39%)은 표준 발음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학력이 높고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여 이러한 요인이 표준 발음의 실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음18] -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 '펴->피-'

전체적으로 '펴-'가 50%를 웃돌고 있다. 집단3(36~45), 집단4(46~55), 집단 5(55~65)에서 '펴-'의 빈도가 지배적이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피-'의 빈도도 45%를 상회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	1)	합계
16~25	29(42.0)	39(56.5)	1(1.3)	69(100)
26~35	30(52.6)	27(47.4)	0(0.0)	57(100)
36~45	26(78.8)	7(21.2)	0(0.0)	33(100)
46~55	40(62.5)	24(37.5)	0(0.0)	64(100)
56~65	14(60.9)	9(39.1)	0(0.0)	23(100)
66 이상	21(38.9)	29(53.7)	4(7.4)	54(100)
합계	160(53.3)	135(45.0)	5(1.7)	300(100)

<표 25> '펴다(여/이/에)'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5> '펴다(여/이/에)'의 연령별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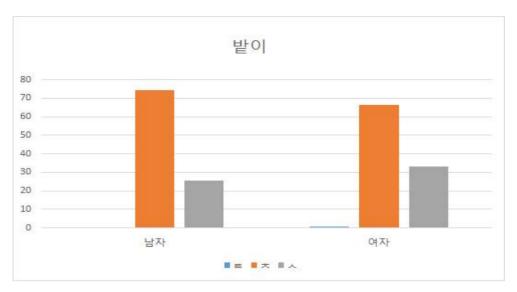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약간의 비율상의 상위는 있지만 2014년의 평택 조사와 거의 일치한다. 왜 중간 세대에서 표준형 '펴-'의 실현이 지배적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조사 결과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출신 지역을 고려하 여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조사, 그리고 '켜-'를 포함한 유사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음19], [음20] - 재구조화, '밭이', '꽃이'

'밧이'(밭이)와 '꼿이'(꽃이)는 'ㅌ'와 'ㅊ'의 마찰음화에 의해 재구조화가 일어 난 형태다.

성별	ż	人	E	합계
남자	97(74.6)	33(25.4)	0(0.0)	130(100)
여자	113(66.5)	56(32.9)	1(0.6)	170(100)
합계	210(70.0)	89(29.7)	1(0.3)	300(100)

<표 26> '밭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그림 26> '밭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성별	Ž.	人	기타	합계
남자	113(86.9)	16(12.3)	1(0.8)	130(100)
여자	131(77.0)	38(22.4)	1(0.6)	170(100)
합계	244(81.3)	54(18.0)	2(0.7)	300(100)

<표 27> '꽃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그림 27> '꽃이(ㅊ/ㅅ)'의 성별 실현율

위의 두 표에서 보듯, 여성은 남성보다 '밧이'와 '꼿이'라는 발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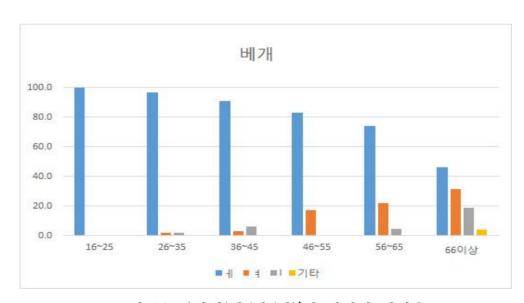
7.5%-10.1% 정도 더 많이 한다. 이로 보아 어간 말 'ㅌ, ㅊ > ㅅ'의 재구조화는 여성에게서 더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음24] - 재구조화, '베개'

2014년에 조사하지 않은 단어로 '베개'가 있다. 이 단어의 실현은 앞선 '펴-'와 비교해 볼 수도 있으나, '여'형(펴다)과 '이'형(피다)이 압도적인 '펴-'와 달리 '베개'는 '에'형(베개)이 압도적이므로 두 어형 사이의 관련성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베개'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연령	1	‡	1	기타	합계
16~25	69(100.0)	0(0.0)	0(0.0)	0(0.0)	69(100)
26~35	55(96.4)	1(1.8)	1(1.8)	0(0.0)	57(100)
36~45	30(90.9)	1(3.0)	2(6.1)	0(0.0)	33(100)
46~55	53(82.8)	11(17.2)	0(0.0)	0(0.0)	64(100)
56~65	17(73.9)	5(21.8)	1(4.3)	0(0.0)	23(100)
66 이상	25(46.3)	17(31.5)	10(18.5)	2(3.7)	54(100)
합계	249(83.0)	35(11.7)	14(4.6)	2(0.7)	300(100)

<표 28> '베개(에/여/이)'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8> '베개(에/여/이)'의 연령별 실현율

이 단어는 표준형(베개)의 실현이 세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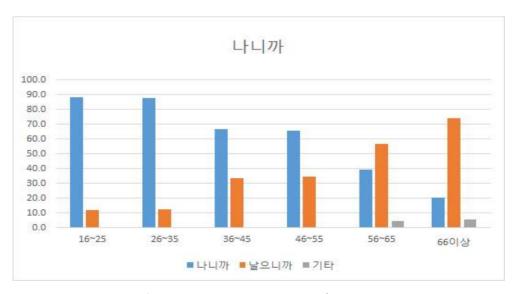
인 예다. '베개'가 집단1(16~25)에서는 100%, 집단2(26~35), 집단3(36~45)에서는 90% 이상, 집단4(46~55)에서는 80%, 집단5(56~65)에서는 70%로 점차 줄어들다가 집단6(66 이상)에서 46%로 급격히 줄었다. 세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 단어는, 표준형이 점차 보급되다가 10대에 이르러 비표준형을 완전히 축출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어형으로 판단된다.

[음26] - 'ㄹ' 말음 용언의 활용, '날으니까'

이 또한 올해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단어다. 이는 'ㄹ' 말음 용언 어간이 어미 '-니까'와 결합할 때 'ㄹ'가 탈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연령	나니까	날으니까	기타	합계
16~25	61(88.4)	8(11.6)	0(0.0)	69(100)
26~35	50(87.7)	7(12.3)	0(0.0)	57(100)
36~45	22(66.7)	11(33.3)	0(0.0)	33(100)
46~55	42(65.6)	22(34.4)	0(0.0)	64(100)
56~65	9(39.2)	13(56.5)	1(4.3)	23(100)
66 이상	11(20.4)	40(74.1)	3(5.5)	54(100)
합계	195(65.0)	101(33.7)	4(1.3)	300(100)

<표 29> '나니까(나니까/날으니까)'의 연령별 실현율



<그림 29> '나니까(나니까/날으니까)'의 연령별 실현율

이 단어도 표준형(나니까)의 실현이 세대와 관련됨을 보여 준다. 집단 $1(16\sim25)$, 집단 $2(26\sim35)$ 에서는 88%, 집단 $3(36\sim45)$, 집단 $4(46\sim55)$ 에서는 66%, 집단 $5(56\sim65)$ 에서는 39%, 집단6(66 이상)에서는 20%로, 1/5(20%)씩 점차 줄 어들고 있다. 이로부터 서울 지역에서 '날으니까'를 많이 쓰다가 '나니까'를 많이 쓰는 쪽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을 갖춘 다른 단어들도 함께 조사해 보면 좋을 듯하다.

3.4 항목별 분석 - 어휘

집단1은 $16\sim25$ 세, 집단2는 $26\sim35$ 세, 집단3은 $36\sim45$ 세, 집단4는 $46\sim55$ 세이며, 집단5는 $56\sim65$ 세, 집단6은 66세 이상을 가리킨다. 주로 세대별 변이 양상만을 살피되 필요한 경우는 성별 변이 양상을 제시한다.

[어01-어02] '쇠다', '서리'- 고유어 소멸

고유어 소멸과 관련하여 '쇠다'와 '서리'를 조사하였다.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쇠다'라는 말 대신에 '보내다', '되다'과 같은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 데도 이번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제보자가 '쇠다'라는 말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안다	모른다	기타	합계
16~25	62	6	1	69
26~35	53	0	4	57
36~45	27	0	6	33
46~55	58	0	6	64
56~65	21	1	1	23
66 이상	48	0	6	54
합계	269	7	24	300

<표 30> '명절을 쇠다'(고유어 소멸) 교차표

다만, 집단 $1(16\sim25)$ 에서 '4-'에 대해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0%에 이른다. '서리'에 대한 인지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н	그러니	oli lel	호난과]
구분	그렇다	<u> </u>	합계
16~25	64	5	69
26~35	56	1	57
36~45	32	1	33
46~55	63	1	64
56~65	23	0	23
66 이상	53	1	54
합계	291	9	300

<표 31> '서리' 인지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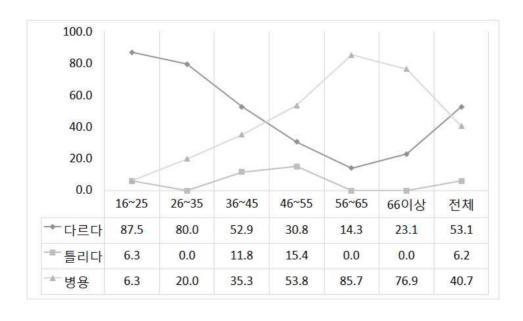
[어03] '다르다/틀리다' - 방언의 확산

대중매체에서는 '틀리-'의 사용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빈도가 그리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 각각 26%, 33%에 달할 정도로 '틀리다'라고 응답한 제보자가 많았다.

구분	다르다	틀리다
16~25	95.7	4.3
26~35	100.0	0.0
36~45	90.9	9.1
46~55	93.8	6.3
56~65	73.9	26.1
66 이상	66.7	33.3
합계	88.7	11.3

<표 32> '다르다/틀리다' 교차표

아래 평택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틀리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다. 연령대에서도 집단3(36~45)과 집단4(46~55)에서 '틀리다'의 발화 빈도 가 높아 차이를 보인다. 표본의 차이로 이해될 여지가 높을 듯하다.



<그림 30> '다르다/틀리다' 평택조사 결과

[어04-08] '누다/싸다', '썰다/자르다', '가렵다/간지럽다', '주다/달다', '손수/직접' -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

'누다(오줌을 누-)'와 '싸다'의 경우 집단4(46~55) 이상에서는 '누다'를 사용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집단3(36~45)에서는 '싸다'로 발화하는 비율이 30%, 집단4(46~55)에서는 40%, 집단5(56~65)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세대별로 의미 있는 변이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구분	누다	싸다
16~25	47.8	52.2
26~35	57.9	42.1
36~45	69.7	30.3
46~55	81.3	18.8
56~65	82.6	17.4
66 이상	79.6	20.4
합계	67.7	32.3

<표 33> '누다/싸다' 교차표

반면 아래의 '썰-(깍두기를 썰-)'과 '자르-'는 대체적으로 8:2의 비율로 발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집단6(66 이상)에서 '자르-'로 발화되는 빈도가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썰다	자르다	기타
16~25	73.9	23.2	2.9
26~35	75.4	21.1	3.5
36~45	78.8	21.2	0.0
46~55	78.1	21.9	0.0
56~65	73.9	21.7	4.3
66 이상	85.2	14.8	0.0
합계	77.7	20.7	1.7

<표 34> '썰다/자르다' 교차표

아래에서도 8(가렵다, 모기에 물려 가렵-):2(간지럽다)의 비율로 나타나나 집 단3(36~45)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7:3에 이르기도 한다. 반면 집단4(46~55) 이상에서는 9:1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가렵다	간지럽다
16~25	72.5	27.5
26~35	68.4	31.6
36~45	75.8	24.2
46~55	87.5	12.5
56~65	87.0	13.0
66 이상	90.7	9.3
합계	79.7	20.3

<표 35> '가렵다/간지럽다' 교차표

다음으로는 '주라고/달라고'에 대해서 그 양상을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7(이리 주라고):3(이리 달라고)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특히 집단1(16~25)에서 '주라고'의 발화가 가장 높은 것(90%)으로 확인되었다. 정상적인 어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발화 '주라고'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라고	달라고
16~25	88.4	11.6
26~35	70.2	29.8
36~45	72.7	27.3
46~55	62.5	37.5
56~65	73.9	26.1
66 이상	66.7	33.3
합계	72.7	27.3

<표 36> '주다/달다' 연령 교차표

예상과 다른 것은 전 세대에서 '주라고'로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별이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라고	달라고	합계
남자	102(78.5)	28(21.5)	130(100)
여자	116(68.2)	54(31.8)	170(100)
합계	218(72.7)	82(27.3)	300(100)

<표 37> '주다/달다' 성별 교차표

남성이 80%에 이를 정도로 '주라고'를 '달라고'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은 70% 정도가 '주라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10% 정도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이 비문법적 표현을 더 쓰는 것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은 엿볼 수 있다.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 '손수/직접'에서의 사용 예를 알아보자. 집단5(56~65)과 집단6(66 이 상)에서는 '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비율이 50% 정도라면 그 이하의 집단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접'이라고 발화하는 비율이 '손수'에 비해 3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손수	직접	스스로	기타
16~25	27.5	53.6	2.9	15.9
26~35	21.1	70.2	1.8	7.0
36~45	3.0	90.9	0.0	6.1
46~55	20.3	62.5	0.0	17.2
56~65	43.5	47.8	4.3	4.3
66 이상	46.3	42.6	0.0	11.1
합계	26.7	60.3	1.3	11.7

<표 38> '손수/직접' 교차표

[어09-어10] '진지/밥', '편찮다/아프다' - 높임말

'밥'과 '진지'는 전체 집단에서 고르게 '진지'로 발화하는 비율이 94%에 달했다. 다만 '아프다/편찮다'는 집단6(66 이상)에서 13%가 '아프-'라고 응답하였

다. 집단 $1(16\sim25)$ 도 9% 정도가 '아프-'라고 대답하였다. '진지'라는 높임말에 비해 '편찮다'는 '아프다'와 혼용되는 비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편찮으세요	아프세요
16~25	91.3	8.7
26~35	94.7	5.3
36~45	93.9	6.1
46~55	96.9	3.1
56~65	100.0	0.0
66 이상	87.0	13.0
합계	93.3	6.7

<표 39> '편찮다/아프다' 교차표

[어11] '부추/정구지/솔/졸' - 표준어의 확산

구분	부추	정구지	솔	졸	기타	부추, 정구지	부추, 솔	합계
16~25	57	5	0	0	0	7	0	69
26~35	41	6	0	0	0	8	2	57
36~45	31	1	0	0	0	1	0	33
46~55	50	2	1	1	0	6	4	64
56~65	16	3	1	1	1	1	0	23
66 이상	39	5	1	1	4	4	0	54
합계	234	22	3	3	5	27	6	300

<표 40> '부추'(표준어의 확산, 방언의 인지) 교차표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10% 정도가 '정구지'라고 응답하였고 집 단3(36~45), 집단4(46~55)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준어인 '부추'를 대답하는 비율 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정구지'로 발화하 는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성별 변수도 참고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남자	82(63.1)	48(36.9)	130(100)
여자	134(78.8)	36(21.2)	170(100)
합계	216(72)	84(28)	300(100)

<표 41> 표준어형('부추')-인지 성별 교차표

여성이 표준어형 '부추'에 대해 80%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남성도 70% 정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미한 결과인지는 모르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표준어형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표준어형 '부추'에 대해 15% 정도보다 더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많은 대상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어12-어15] '비번', '쨈', '물냉', '파바' - 줄임말

구분	비밀번호	비번	기타	합계
16~25	27	42	0	69
26~35	23	34	0	57
36~45	19	14	0	33
46~55	39	25	0	64
56~65	20	1	2	23
66 이상	49	3	2	54
합계	177	119	4	300

<표 42> '비밀번호 → 비번'(줄임말) 교차표

'비번'으로 발화하는 비율이 집단1(16~25), 집단2(26~35)가 60%에 이른다면 집단3(36~45), 집단4(46~55)는 40% 정도에 머무르고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은 '비번'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구분	선생님	샘/쌤	기타	합계
16~25	50	19	0	69
26~35	48	9	0	57
36~45	33	0	0	33
46~55	58	5	1	64
56~65	20	3	0	23
66 이상	52	2	0	54
합계	261	38	1	300

<표 43> '선생님 → 샘/쌤'(줄임말) 교차표

'샘/쌤'이라고 하는 경우는 집단 $1(16\sim25)$ 이 20%, 집단 $2(26\sim35)$ 가 10%에 이른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줄이는 빈도가 낮아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집단 $6(66\ 0)$ 상)에서는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물냉면	물냉	합계
16~25	24	45	69
26~35	26	31	57
36~45	14	19	33
46~55	44	20	64
56~65	17	6	23
66 이상	47	7	54
합계	172	128	300

<표 44> '물냉면 → 물냉'(줄임말) 교차표

집단1(16~25)에서는 줄임말인 '물냉'이 65%에 달하나, 집단2(26~35), 집단 3(36~45)으로 갈수록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집단4(46~55)에서는 외려 줄지 않은 꼴인 '물냉면'이 50%를 넘어서고 윗세대로 갈수록 줄임말의 사용이 20% 이하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구분	파리바게트/ 빠리바게트	파바/빠바	기타	합계
16~25	30	39	0	69
26~35	36	21	0	57
36~45	29	4	0	33
46~55	58	5	1	64
56~65	21	2	0	23
66 이상	43	1	10	54
합계	217	72	11	300

<표 45> '파리바게트 → 파바'(줄임말) 교차표

'파리바게트'의 줄임말 '파바'는 '물냉'에 비해 훨씬 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집단 $4(46\sim55)$ 부터 10% 이하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번'과 달리 집 단 $1(16\sim25)$ 에서조차 55%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어16-어20] '휴대전화', '집단따돌림', '텔레비전', '단무지', '냉장'-순화 어/외래어

구분	휴대전화	휴대폰	핸드폰	폰	기타	합계
16~25	0	11	48	9	1	69
26~35	2	10	39	5	1	57
36~45	1	5	25	0	2	33
46~55	0	16	45	1	2	64
56~65	0	5	15	3	0	23
66 이상	0	7	40	4	3	54
합계	3	54	212	22	9	300

<표 46> '휴대전화'(순화어) 교차표

순화어로 사용되는 확률은 1%로 매우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핸드폰이전 집단에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휴대폰과 핸드폰의 비율이 5배 정

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구분	집단 따돌림	왕따	따돌림	따	기타	합계
16~25	0	67	1	1	0	69
26~35	1	55	0	0	1	57
36~45	0	33	0	0	0	33
46~55	1	63	0	0	0	64
56~65	0	23	0	0	0	23
66 이상	2	51	1	0	0	54
합계	4	292	2	1	1	300

<표 47> '집단 따돌림'(순화어) 교차표

평택 조사에서와 같이 '왕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역시 순화어는 1%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텔레비전	테레비	티비	티브이	텔레비전 , 테레비	티비, 티브이	합계
16~25	3	4	60	2	0	0	69
26~35	6	2	45	3	1	0	57
36~45	6	6	18	3	0	0	33
46~55	7	8	38	11	0	0	64
56~65	1	12	6	4	0	0	23
66 이상	1	38	7	7	0	1	54
합계	24	70	174	30	1	1	300

<표 48> '텔레비전'(외래어) 교차표

'테레비'는 집단 $5(56\sim65)$ 에서 50%, 집단 $6(66\ o)$ 상)에서 70%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집단 $4(46\sim55)$ 에서는 12%에 머물고 있다. 세대 차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집단 $4(46\sim55)$ 이하에서는 '티비'로 발화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단무지	다꽝	노란무	기타	합계
16~25	69	0	0	0	69
26~35	57	0	0	0	57
36~45	32	1	0	0	33
46~55	62	1	1	0	64
56~65	22	1	0	0	23
66 이상	37	14	0	3	54
합계	279	17	1	3	300

<표 49> '단무지'(외래어) 교차표

단무지는 의외로 순화가 잘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6(66 이상)에서만 '다꽝'이라고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비율 또한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뻰또'와 더불어 일본어 순화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된다. '짬뽕'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화가 많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평택에서는 '단무지'를 거의 모든 세대가 사용하는 가운데 '다꽝'은 50대 이상에서 사용 예가 보였다. 젊은 세대가 '다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잔존 일본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순화 대상어 1순위이기 때문에 고유어로 정착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도 일본어 잔존어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히야시' 계열의 잔존하는 일본어가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한 항목이다.

구분	냉장	히야시	기타	합계
16~25	10	5	54	69
26~35	14	7	36	57
36~45	14	14	5	33
46~55	10	33	21	64
56~65	3	16	4	23
66 이상	8	34	12	54
합계	59	109	132	300

<표 50> '히야시'(외래어) 교차표

아래 표를 참고할 때 집단 $3(36\sim45)$ 에서 반반 정도의 비율로 나타남을 주목할 수 있다. 곧 집단 $4(46\sim55)$ 이상에서는 '히야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하의 집단 $1(16\sim25)$, 집단 $2(26\sim35)$ 에서는 오히려순화어인 '냉장'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히야시'의 인지와 관련하여 집단2(26~35)까지는 인지 비율이 낮았다. 바로 이것이 위의 응답형의 비율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30대이상에서는 인지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집단3(36~45)에서 50%가량이 '히야시'를 답하였다. 외래어와 관련해서는 집단3(36~45)이 변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아니다
16~25	11.6	88.4
26~35	33.3	66.7
36~45	75.8	24.2
46~55	93.8	6.3
56~65	91.3	8.7
66 이상	90.7	9.3
합계	60.7	39.0

<표 51> '히야시' 인지 비율(%)

구분	냉장	히야시	기타	합계
남자	20(15.4)	42(32.3)	68(52.3)	130(100)
여자	39(22.9)	67(39.4)	64(37.6)	170(100)
합계	59(19.7)	109(36.3)	132(44)	300(100)

<표 52> '히야시'(외래어) 성별 교차표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여성과 남성은 공히 1:2 정도의 비율로 '냉장'보다는 '히야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비율상 남성이 '냉장'에 비해 '히야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냉장' 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7%가 높은데 이는 아무래도 남성이 신어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많은 관련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

[어21-어27] '아빠', '엄마', '여보', '아범', '집사람' - 호칭, 지칭 다음은 '아빠'라는 호칭어의 세대별 변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구분	아버지	아베	아부지	기타	합계
16~25	9	60	0	0	69
26~35	18	39	0	0	57
36~45	12	19	0	2	33
46~55	48	15	1	0	64
56~65	23	0	0	0	23
66 이상	50	3	1	0	54
합계	160	136	2	2	300

<표 53> '아빠/아버지'(호칭) 교차표

세대별로 거의 100% 아빠라는 호칭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런 반면실제 답변은 청년층으로 갈수록 '아빠'라는 호칭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을알 수 있다. 특히 집단4(46~55)에서는 '아버지'의 사용이 75%에 이르고 있음을알 수 있고 집단3(36~45)에서는 '아빠'의 사용이 55%임을알 수 있다. 이로써 '아빠'라는 호칭어는 집단4(46~55)에서 조금씩 나타나다가(20%), 집단3(36~45)에서 50%를 넘어서고 집단2(26~35), 집단1(16~25)에서는 '아빠'로발화하는 경우가 압도적임을알 수 있다. 이는 호칭어 '엄마'와는 다른 모습을보인다. 호칭어 '어머니'는 집단5(56~65)에서 50%에 육박하고 집단6(66 이상)에서는 60%에 이르고 있다. 집단4(46~55) 이하에서는 압도적으로 엄마에 밀리는 양상을확인할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도 '엄마'라는 호칭어의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건리감과 어머니에 대한 친근감의 표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구분	어머니	엄마	어무니	합계
16~25	1	68	0	69
26~35	5	52	0	57
36~45	5	28	0	33
46~55	14	50	0	64
56~65	10	12	1	23
66 이상	29	24	1	54
합계	64	234	2	300

<표 54> '엄마/어머니'(호칭) 교차표

연령 변수만큼 성별 변수도 중요해 보인다.

구분	어머니	엄마	어무니	합계
남자	39(30)	90(69.2)	1(0.8)	130(100)
여자	25(14.7)	144(84.7)	1(0.6)	170(100)
합계	64(21.3)	234(78)	2(0.7)	300(100)

<표 55> '엄마/어머니'(호칭) 성별 교차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엄마'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85%가 '엄마'라고 부른다고 나타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는 "부부 간에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와 관련된 세대별 호칭어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구분	여보	자기야	०० ोमो	오빠	이름	기타	합계
16~25	40	11	8	2	6	2	69
26~35	29	15	3	6	2	2	57
36~45	5	10	9	5	2	2	33
46~55	21	15	20	1	3	4	64
56~65	10	4	8	0	0	1	23
66 이상	29	5	10	1	0	9	54
합계	134	60	58	15	13	20	300

<표 56> '여보'(호칭) 교차표

'여보'라는 호칭어를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집단 $2(26\sim35)$ 과 집단 $4(46\sim55)$ 에서는 호칭어 '여보'의 사용이 꺼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자기야'와 '00 아빠'라는 호칭어가 다른 집단보다 활발히 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반대 상황이다. 즉, 부부 간에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경우이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집단 $3(36\sim45)$ 과 집단 $4(46\sim55)$ 에서 '자기야', '00 엄마'와 같은 호칭어가 활발히 쓰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여보	자기야	ㅇㅇ 엄마	이름	기타	합계
16~25	36	15	6	9	3	69
26~35	27	14	4	11	1	57
36~45	6	8	11	7	1	33
46~55	22	10	24	5	3	64
56~65	11	3	4	2	3	23
66 이상	31	2	13	2	6	54
합계	133	52	62	36	17	300

<표 57> '여보'(호칭) 교차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구분	아비/아범	00 아빠	<u> </u>	00씨	기타	합계
16~25	18	25	15	5	6	69
26~35	9	29	3	5	11	57
36~45	12	16	0	2	3	33
46~55	28	30	2	1	3	64
56~65	13	9	0	0	1	23
66 이상	26	24	1	0	3	54
합계	106	133	21	13	27	300

<표 58> '아비/아범'(지칭) 교차표

특이한 것은 '그이'라는 지칭어가 집단 $1(16\sim25)$ 에서 20%를 넘는다는 것이다. 다른 세대에서는 '그이'라는 지칭어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청년층일수록 '00 아빠'가 우세하나 집단 $4(46\sim55)$ 에서는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집단 $5(56\sim65)$, 집단6(66 이상)에서는 대략 60% 정도가 '아비/아범'이라 응답한다. 평택 조사에서는 '아비/아범류'의 사용이 집단 $5(56\sim65)$ 이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항목이다.

구분	집사람	와이프	아내/부인	ㅇㅇ 엄마	기타	합계
16~25	34	22	2	4	7	69
26~35	16	28	6	2	5	57
36~45	11	14	1	2	5	33
46~55	27	26	3	5	3	64
56~65	19	1	1	1	1	23
66 이상	44	4	0	1	5	54
합계	151	95	13	15	26	300

<표 59> '집사람'(지칭) 교차표

의외인 것은 집단1(16~25)에서 '집사람'이 '와이프'를 크게 앞서는 양상이다. 반면 집단2(26~35), 집단3(36~45)에서는 '와이프'가 좀 더 우세한 양상을보이며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집사람'이 압도적이라 하겠다. 집단4(46~55)는 대체로 '집사람', '와이프'의 비율이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내'와 '부인'은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 더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집단1(16~25)에서 '집사람'의 높은 점유율은 교육의 영향과 관계될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인'이라는 호칭의 단독 사용은 젊은 세대에 제한되어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집사람'의 지칭어 사용이 감소하게 되는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홍민표(2010)에서는 주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인 집사람은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음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항목이다. 집단 $1(16\sim25)$, 집단 $2(26\sim35)$ 에서 주로 '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성별 변수를 파악해야 하는 항목일 것이다.

구분	형/오빠	선배	아저씨	기타	합계
16~25	64(92.8)	1(1.4)	1(1.4)	3(4.3)	69(100)
26~35	48(84.2)	1(1.8)	2(3.5)	6(10.5)	57(100)
36~45	13(39.4)	2(6.1)	10(30.3)	8(24.2)	33(100)
46~55	22(34.4)	7(10.9)	21(32.8)	14(21.9)	64(100)
56~65	8(34.8)	3(13)	8(34.8)	4(17.4)	23(100)
66 이상	9(16.7)	2(3.7)	28(51.9)	15(27.8)	54(100)
합계	164(54.7)	16(5.3)	70(23.3)	50(16.7)	300(100)

<표 60> '형/오빠'(호칭) 교차표

구분	형/오빠	선배	아저씨	기타	합계
남자	96(73.8)	6(4.6)	6(4.6)	22(16.9)	130(100)
여자	68(40)	10(5.9)	64(37.6)	28(16.5)	170(100)
합계	164(54.7)	16(5.3)	70(23.3)	50(16.7)	300(100)

<표 61> '형/오빠'(호칭) 성별 교차표

남성의 경우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70%를 상회하고 여성의 경우는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40%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아저씨'라고 부르는 비율 또한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령대와도 밀접히 연관될 터인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형'보다는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28-어29] '사장님', '언니' - 사회적 호칭어

잘 모르는 동년배나 그 이상 나이의 남자를 부르는 말에 대해 그 변이 양상을 알아보려는 항목이다.

의외로 모든 집단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집단6(66 이상)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어의 사용 빈도가 20%에 육박한다. 대신 아저씨가 40%, 선생님이라는 답변이 30%였다. 남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여성 제보자인 경우 '사장님'으로의 발화가 제대로 나

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분	사장님	선생님	아저씨	기타	합계
16~25	7	19	8	35	69
26~35	2	27	8	20	57
36~45	6	17	4	6	33
46~55	8	32	13	11	64
56~65	5	10	5	3	23
66 이상	10	14	22	8	54
합계	38	119	60	83	300

<표 62> '사장님'(호칭) 교차표

평택 조사에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의 단독 사용은 매우 적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집단4(46~55)의 경우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23%로 나타났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비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별 변수와 관련하여 그 차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구분	사장님	선생님	아저씨	기타	합계
남자	18(13.8)	58(44.6)	10(7.7)	44(33.8)	130(100)
여자	20(11.8)	61(35.9)	50(29.4)	39(22.9)	170(100)
합계	38(12.7)	119(39.7)	60(20)	83(27.7)	300(100)

<표 63> '사장님'(호칭) 성별 교차표

남성은 '사장님(13.8%)'이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44.6%)'이라는 호칭을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는 '선생님(35.9%)'과 '아저씨(29.4%)'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아저씨'에 대한 호칭의 사용 빈도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아저씨'를 사용하는 것이 7.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남녀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남자	31(23.8)	99(76.2)	130(100)
여자	25(14.7)	145(85.3)	170(100)
합계	56(18.7)	244(81.3)	300(100)

<표 64> '사장님'-사용 성별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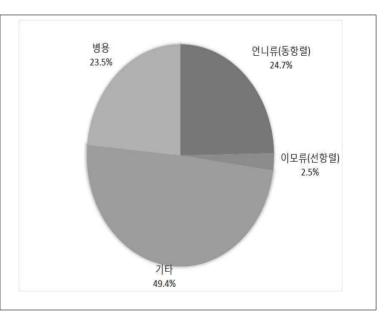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여성이 14.7%만 가능한 것으로 답하였고 남성은 그보다 10%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비율이라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확산되기 어려워 보인다.

구분	언니	이모	여기요	저기요	아가씨	기타	합계
16~25	19	8	6	24	6	6	69
26~35	14	7	3	21	6	6	57
36~45	15	7	2	4	3	2	33
46~55	16	10	12	2	13	11	64
56~65	9	1	1	0	8	4	23
66 이상	23	4	0	0	20	7	54
합계	96	37	24	51	56	36	300

<표 65> '언니'(호칭) 교차표

평택 조사에서는 '이모'류의 단독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3% 이하) 이번 조사에서는 '언니'와 '이모'의 비율만 따지자면 3:1 정도라볼 수 있다. '이모'의 사용(10% 이상)이 집단4(46~55) 이하에서 다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언니'가 전체에서 30%를 차지하고 '여기요', '저기요'를 합친 것도 25%에 이름을 알 수 있다.

빈도
20
2
40
19
81



<그림 31> '언니'(호칭) 평택조사 결과

구분	언니	이모	여기요	저기요	아가씨	기타	합계
남자	13(10)	15(11.5)	11(8.5)	34(26.2)	35(26.9)	22(16.9)	130(100)
여자	83(48.8)	22(12.9)	13(7.6)	17(10)	21(12.4)	14(8.2)	170(100)
합계	96(32)	37(12.3)	24(8)	51(17)	56(18.7)	36(12)	300(100)

<표 66> '언니'(호칭) 성별 교차표

여성은 언니(48.8%), 이모(12.9%), 아가씨(12.4%), 저기요(10%) 순으로 답을 하였고 남성은 아가씨(26.9%), 저기요(26.2%), 이모(11.5%), 언니(10%)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차가 잘 드러나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30-어32] '너무', '착하다', '섞다' - 의미 확장

구분	너무	정말	아주	진짜	기타	합계
16~25	30	15	3	12	9	69
26~35	23	13	2	8	11	57
36~45	10	8	5	2	8	33
46~55	19	26	5	4	10	64
56~65	13	3	2	2	3	23
66 이상	13	20	4	0	17	54
합계	108	85	21	28	58	300

<표 67> '너무'(의미 확장) 교차표- '너무 좋아요'

비록 집단5(56~65)이 특이하지만 집단4(46~55), 집단6(66 이상)에서는 '정말'이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너무'가 사용 빈도 면에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층이 바로 집단3(36~45)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별 변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구분	너무	정말	아주	진짜	기타	합계
남자	37(28.5)	32(24.6)	10(7.7)	19(14.6)	32(24.6)	130(100)
여자	71(41.8)	53(31.2)	11(6.5)	9(5.3)	26(15.3)	170(100)
합계	108(36)	85(28.3)	21(7)	28(9.3)	58(19.3)	300(100)

<표 68> '너무'(의미 확장) 성별 교차표

남성은 너무(28.5%), 정말(24.6%), 진짜(14.6%)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너무(41.8%), 정말(31.2%), 아주(6.5%)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너무'를 사용하는 여성의 빈도에 비해 남성의 빈도가 14% 정도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진짜(14.6%)'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짜'라고 답한 여성은 5%에 불과했다.

구분	싸다	착하다	기타	합계
16~25	62	4	3	69
26~35	50	6	1	57
36~45	25	7	1	33
46~55	55	5	4	64
56~65	21	1	1	23
66 이상	53	0	1	54
합계	266	23	11	300

<표 69> '착하다'(의미 확장) 교차표 -'가격이 착하다'

집단 $1(16\sim25)$ 에서 집단 $4(46\sim55)$ 까지 '착하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sim10\%$ 에 이른다. 집단 $5(56\sim65)$, 집단6(66 이상)에서 거의 답변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매체의 노출 정도로 이해될 듯하다.

아울러 성별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이 착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20%, 여자는 30%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인지,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해 보인다.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남자	25(19.2)	105(80.8)	130(100)
여자	53(31.2)	117(68.8)	170(100)
합계	78(26)	222(74)	300(100)

<표 70> '착하다'-사용 성별 교차표

구분	말 섞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기타	합계
16~25	43	26	0	69
26~35	47	9	1	57
36~45	25	8	0	33
46~55	31	30	3	64
56~65	10	13	0	23
66 이상	11	42	1	54
합계	167	128	5	300

<표 71> '섞다'(의미 확장) 교차표

이 항목 또한 집단4(46~55)에서 50%의 비율을 보이다가 집단5(56~65), 집 단6(66 이상)에 이르면 특히 집단6(66 이상)에서는 '말을 섞지 마라'보다는 '말 하지 마라'의 비율이 1:3임을 알 수 있다. 그 반대로 집단1(16~25), 집단2(26 ~35), 집단3(36~45)에서는 '말을 섞지 마라'라고 발화하는 빈도가 3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변수도 확인해 보자.

구분	말 섞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기타	합계
남자	81(62.3)	45(34.6)	4(3.1)	130(100)
여자	86(50.6)	83(48.8)	1(0.6)	170(100)
합계	167(55.7)	128(42.7)	5(1.7)	300(100)

<표 72> '섞다'(의미 확장) 성별 교차표

남성은 '말 섞지 마라'라는 대답이 '말하지 마라'라는 대답에 비해 60%를 상회하였고 여성은 전자로 대답하는 경우가 50%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보다 많은 조사 항목이 필요해 보인다.

[어33-어35] '언중유골', '가는 날이 장날', '약방에 감초'- 관용어

구분	정확한 의미로 안다	다른 의미로 안다	모른다	합계
16~25	51	0	18	69
26~35	53	0	4	57
36~45	32	0	1	33
46~55	55	1	8	64
56~65	22	0	1	23
66 이상	26	0	28	54
합계	239	1	60	300

<표 73> '언중유골'(관용어) 교차표

'언중유골'의 의미는 집단 $1(16\sim25)$ 에서는 30%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집단 $6(66\ \text{olb})$ 에서는 50%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학식과 관계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집단 $1(16\sim25)$ 과 집단 $6(66\ \text{olb})$ 이 특이한 것은 아래 '가는 날이 장날'에서도 드러난다. 평택에서는 집단 $6(66\ \text{olb})$ 만이 특이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집단 $1\ \text{또한}$ 특이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집단 $1(16\sim25)$ 과 집단 $6(66\ \text{olb})$ 이 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이해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모른다	기타	합계
16~25	52	11	3	3	69
26~35	52	4	1	0	57
36~45	26	6	0	1	33
46~55	56	3	1	4	64
56~65	21	1	0	1	23
66 이상	42	10	1	1	54
합계	249	35	6	10	300

<표 74> '가는 날이 장날'(속담) 교차표

구분	정확한 의미로 안다	다른 의미로 안다	모른다	기타	합계
16~25	54	4	11	0	69
26~35	54	1	2	0	57
36~45	32	0	1	0	33
46~55	60	3	1	0	64
56~65	19	4	0	0	23
66 이상	36	13	4	1	54
합계	255	25	19	1	300

<표 75> '약방에 감초'(속담) 교차표

3.5 항목별 분석 -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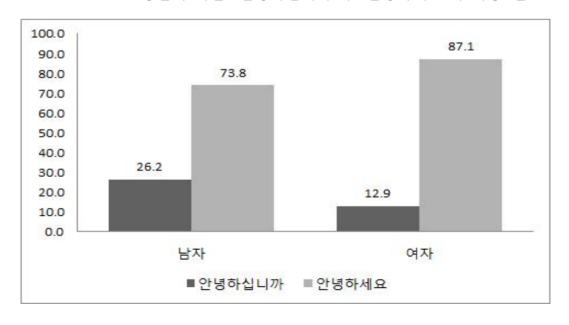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0개의 문법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그 답변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01], [문02] - 경어법, 격식체/비격식체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해요'체를 사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성별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합계
남자	34	96	130
여자	22	148	170
합계	56	244	300

<표 76> 성별에 따른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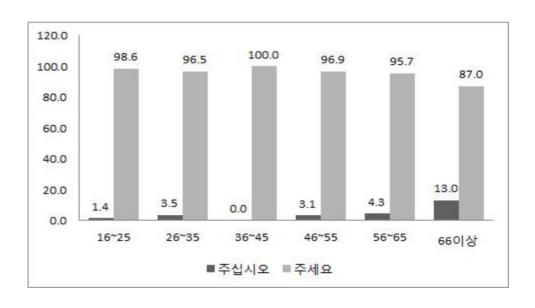
<그림 32> 성별에 따른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림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하십시오'체를 10% 이상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통념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주십시오'와 '이거 주세요'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령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십시오	주세요	합계
16~25	1	68	69
26~35	2	55	57
36~45	0	33	33
46~55	2	62	64
56~65	1	22	23
66 이상	7	47	54
합계	13	287	300

<표 77> 연령대에 따른 '주십시오'와 '주세요'의 사용 빈도



<그림 33> 연령대에 따른 '주십시오'와 '주세요'의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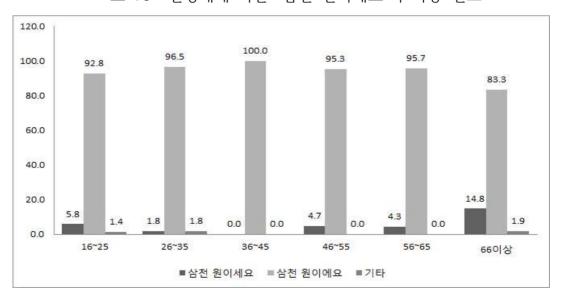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림에 따르면, '주십시오'는 집단6(66 이상)의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3배 이상 월등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03] - 경어법, '삼천 원이세요'

원래 주체높임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인 '-시-'가 그 기능이 확대되어 청자높임으로도 쓰이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삼천 원이세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매우 적었다. 그런데 '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빈도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연령 변인에 따라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구분	삼천원이세요	삼천원이에요	기타	합계
16~25	4	64	1	69
26~35	1	55	1	57
36~45	0	33	0	33
46~55	3	61	0	64
56~65	1	22	0	23
66 이상	8	45	1	54
합계	17	280	3	300

<표 78> 연령대에 따른 '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빈도



<그림 34> 연령대에 따른 '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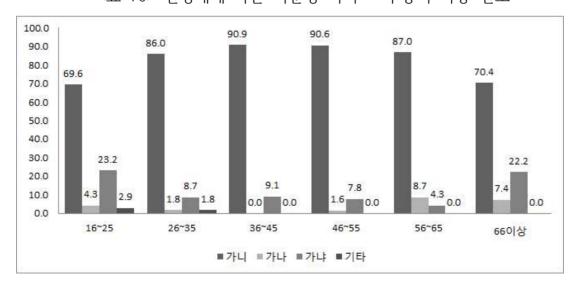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림에 따르면, '삼천 원이세요'는 집단6(66 이상)의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월등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06] - 의문형 어미 '-니' 관련, '가니', '가나', '가냐'

잘 알고 있는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확인할 때 '학교 가니?/가나?'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니'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의문형 어미 '-니' 등의 사용양상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니	가나	가냐	기타	합계
16~25	48	3	16	2	69
26~35	49	1	6	1	57
36~45	30	0	3	0	33
46~55	58	1	5	0	64
56~65	20	2	1	0	23
66 이상	38	4	12	0	54
합계	243	11	43	3	300

<표 79> 연령대에 따른 의문형 어미 '-니'등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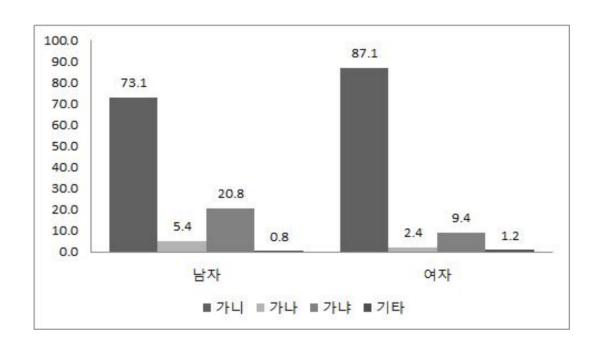


<그림 35> 연령대에 따른 의문형 어미 '-니'등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가냐'는 집단1(16~25)과 집단6(66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뚜렷하게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니	가나	가냐	기타	합계
남자	95	7	27	1	130
여자	148	4	16	2	170
합계	243	11	43	3	300

<표 80> 성별에 따른 의문형 어미 '-니'등의 사용 빈도



<그림 36> 성별에 따른 의문형 어미 '-니'등의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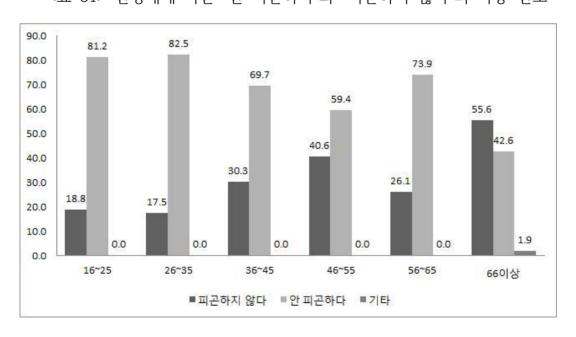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가나'와 '가냐'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2배 이상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을 확인할 수 있다.

[문09] - 부정문, '안 피곤하다/피곤하지 않다'

정승철 외(2014)에서는 '안 공부하다'를 가지고 단형의 '안' 부정문의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안 공부하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높았지만(67%) 실제로 사용하는 제보자는 1.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안 피곤하다'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68%)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피곤하지 않다	안 피곤하다	기타	합계
16~25	13	56	0	69
26~35	10	47	0	57
36~45	10	23	0	33
46~55	26	38	0	64
56~65	6	17	0	23
66 이상	30	23	1	54
합계	95	204	1	300

<표 81> 연령대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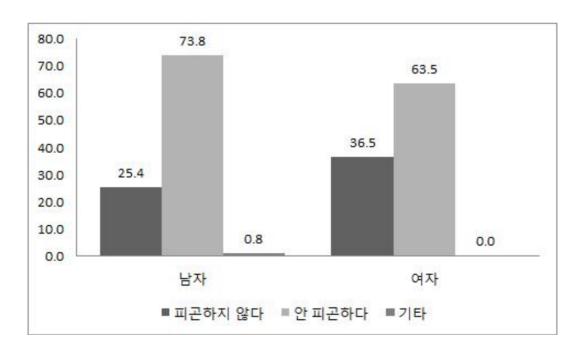


<그림 37> 연령대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집단6(66 이하)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보다 뚜렷하게 높으며, 특히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 반면에 집단6(66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유일하게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이 '안 피곤하다'의 사용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피곤하지 않다	안 피곤하다	기타	합계
남자	33	96	1	130
여자	62	108	0	170
합계	95	204	1	300

<표 82> 성별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빈도



<그림 38> 성별에 따른 '안 피곤하다'와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남자는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보다 약 3배가량 높은 반면, 여자는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의 2배를 넘지 못할 정도 '피곤하지 않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3.6 항목별 분석 - 담화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2개의 담화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그 답변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의 응답은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과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가능하게 하였는데, 미리 준비된 답지는 기존의 담화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관련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유형화한 것이다.

[담01]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아니에요' 등

이 문항은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의 응답 표현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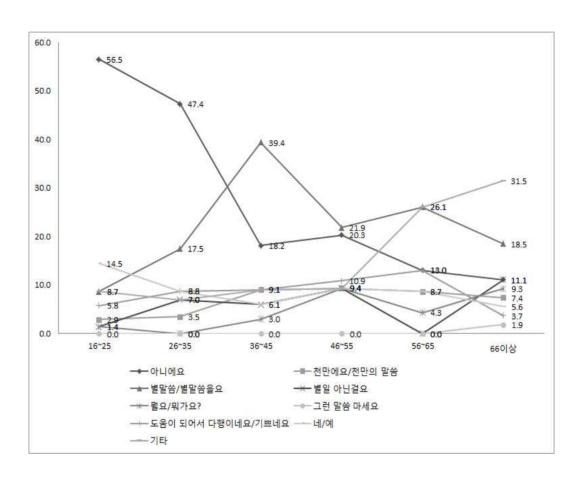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아니에요.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표현
2	천만에요/천만의 말씀.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겸양하는 표현
3	별말씀/별말씀을요.	상대방의 감사가 뜻밖이어서 당황하는 표현
4	별일 아닌걸요.	감사받을 일을 대수롭지 않게 축소하는 표현
5	월요/뭐가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는 표현
6	그런 말씀 마세요.	상대방의 감사를 저지하는 표현
7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네요/기쁘네요.	감사받아서 만족하는 표현
8	네/예.	상대방의 감사를 수용하는 표현
9	기타	

정승철 외(2014)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와 달리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제보자의 자유로운 응답만을 통해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양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은 기타가 35%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네', '아니에요', '뭘요' 등도 20%를 넘지 않았으며, 둘 이상의 응답을 사용하는 경우도 16% 정도의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집단1(16~25), 집단2(26~35)의 청년층과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높은 연령층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1(16~25), 집단2(26~35) 이하에서는 '뭘요'가 전혀 출현하지 않지만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집단5(56~65) 이상, 특히 집단6(66 이상)에서는 '뭘요'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니에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천만에요'의 인지도는 86.5%로 매우 높은 반면 조사 대상자의 12.2%만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표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50%를 조금 넘는 수준(5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둘이상의 표현을 병용한다는 응답을 배제하고 조사하였는데, 정승철 외(2014)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승철 외(2014)에서 기타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표현들이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독립하면서 기타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20%가 넘지 않았던 '아니에요'의 비율이 30%를 넘기는(31.3%)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아니에요	39	27	6	13	3	6	94
천만에요/천만의 말씀	2	2	3	6	2	4	19
별말씀/별말씀을요	6	10	13	14	6	10	59
별일 아닌걸요	1	4	2	6	0	6	19
뭘요/뭐가요?	1	0	1	6	1	5	14
그런 말씀 마세요	0	0	0	0	0	1	1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기쁘네요	4	5	3	7	3	2	24
네/예	10	5	2	6	2	3	28
기타	6	4	3	6	6	17	42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83> 연령대에 따른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39> 연령대에 따른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도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1(16~25), 집단2(26~35) 이하의 청년층과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높은 연령층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50% 전후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10%를 조금 넘기는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별말씀/별말씀을요'의 사용 빈도도 집단1(16~25)에서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다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20% 전후인 반면, 집단3(36~45)에서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담02]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괜찮아요' 등

이 문항은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람이 작은 잘못을 하고 사과할 때 응답 표현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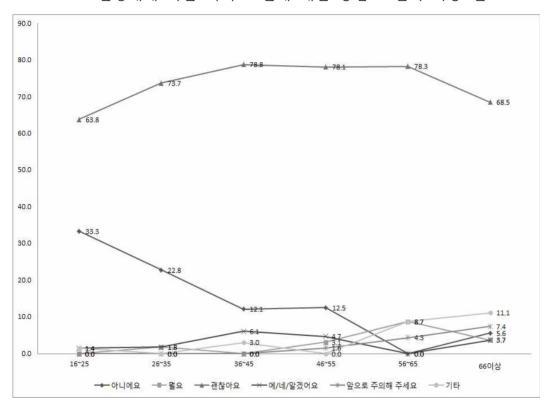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아니에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표현
2	뭘요.	사과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는 표현
3	괜찮아요.	사과하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
4	예/네/알겠어요.	상대방의 사과를 수용하는 표현
5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잘못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표현
6	또 그러지 않으실 거죠?	잘못의 재발 방지 노력을 재확인하는 표현
7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잘못한 상대방을 원망하는 표현
8	기타	

정승철 외(2014)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와 달리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제보자의 자유로운 응답만을 통해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양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에서는 '괜찮아요'가 60%가 넘는 높은 빈도(60.8%)를 보였는데, 이러한 '괜찮아요'의 사용 빈도는 둘 이상의 응답을 사용하는 빈도가 20%를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의 빈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연령층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둘이상의 표현을 병용한다는 응답을 배제하여 조사하였는데, '괜찮아요'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72.3%) 것은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정승철 외(2014)에서와 달리 연령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아니에요	23	13	4	8	0	3	51
<u></u> 멸요	0	1	0	2	2	2	7
괜찮아요	44	42	26	50	18	37	217
예/네/알겠어요	1	1	2	3	0	2	9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0	0	0	1	1	4	6
기타	1	0	1	0	2	6	10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84> 연령대에 따른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0> 연령대에 따른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는 정승철 외(2014)에서와 달리 집단1(16~25), 집단2(26~35)의 청년층과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높은 연령층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약20~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6%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담03]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해요/고맙습니다' 등

이 문항은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람이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할 때 응답 표현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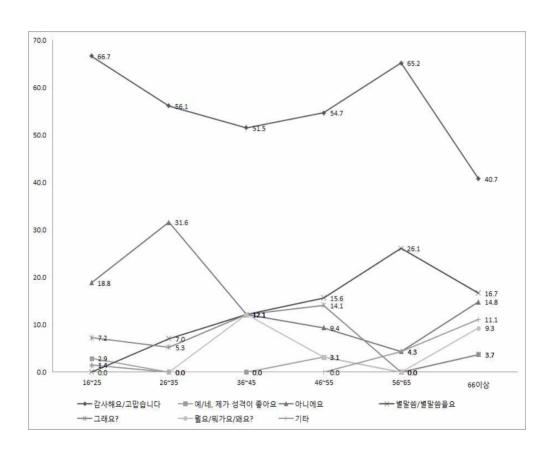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감사해요/고맙습니다.	상대방의 칭찬에 감사하는 표현
2	예/네, 제가 성격이 좋아요.	상대방의 칭찬을 인정하는 표현
3	아니에요.	칭찬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표현
4	별말씀/별말씀을요.	상대방의 칭찬이 뜻밖이라고 당황하는 표현
5	그래요?	칭찬받을 만한지 확인하는 표현
6	뭘요/뭐가요/왜요?	칭찬받을 만하냐고 반문하는 표현
7	그런 말씀 마세요.	상대방의 칭찬을 저지하는 표현
8	기타	

정승철 외(2014)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와 달리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제보자의 자유로운 응답만을 통해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양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에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등의 '감사'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니에요', '별말씀을요'등의 '부정'이 3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칭찬을 그대로 인정하는 유형인 '인정'은 불과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 을 해 보면, 집단1(16~25)의 연령층에서 '감사'유형(62.5%)이 두드러졌고 '부 정'유형(18.8%)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점 등이 눈에 띄었지만, 이것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둘이상의 표현을 병용한다는 응답을 배제하고 조사하였는데, '감사해요/고맙습니다'의 사용 비율이 50%가 넘은(55.6%) 것은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정승철 외(2014)에서와 달리 연령 변인에 따라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감사해요/고맙습니다	46	32	17	35	15	22	167
예/네, 제가 성격이 좋아요	2	0	0	2	0	2	6
아니에요	13	18	4	6	1	8	50
별말씀/별말씀을요	0	4	4	10	6	9	33
그래요?	5	3	4	9	0	2	23
뭘요/뭐가요/왜요?	1	0	4	2	0	5	12
기타	1	0	0	0	1	6	8
결측	1	0	0	0	0	0	1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85> 연령대에 따른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1> 연령대에 따른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는 정승철 외(2014)에서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집단6(66 이

상)의 연령층에서 다른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감사해요/고맙습니다'의 사용 빈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도 연 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연령대 에 따른 단계적 경향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본 추출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담04] 요청/부탁 표현,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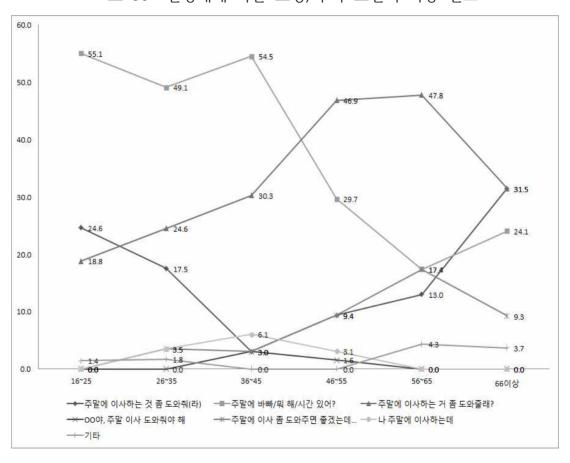
이 문항은 동성 친구에게 당신이 주말에 이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요청/부탁 표현들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요청/부탁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표현	분류
1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	명령하듯 요청하는 표현
2	주말에 바빠?/뭐해?/시간 있어?	수락 가능성에 대해 준비 질문하는 표현
3	주말에 이사하는 거 좀 도와줄래?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 질문하는 표현
4	OO야, 주말 이사 도와줘야 해.	상대방의 의무처럼 진술하는 표현
5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
6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함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
7	기타	

조사 결과, '주말에 바빠?/뭐해?/시간 있어?'와 같이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 표현(40%)이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주말에 이사하는 거 좀 도와줄래?'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질문하는 표현(31.6%),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와 같이 명령하듯 요청하는 표현(1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또한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양상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	17	10	1	6	3	17	54
주말에 바빠?/뭐 해?/시간 있어?	38	28	18	19	4	13	120
주말에 이사하는 거 좀 도와줄래?	13	14	10	30	11	17	95
OO야, 주말 이사 도와줘야 해	0	0	1	1	0	0	2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0	2	1	6	4	5	18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0	2	2	2	0	0	6
기타	1	1	0	0	1	2	5
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86> 연령대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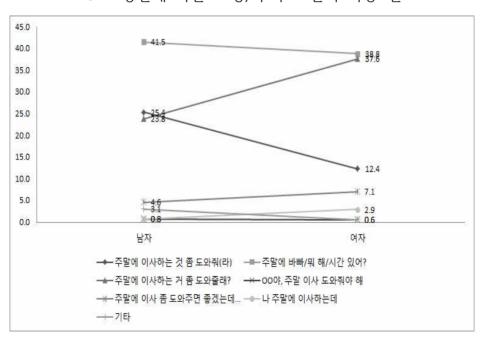


<그림 42> 연령대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집단1(16~25), 집단2(26~35), 집단3(36~45)의 연령층과 집단4(46~55),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연령층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며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집단1(16~25), 집단2(26~35), 집단3(36~45)에서는 '주말에 바빠?/뭐해?/시간 있어?'등과 같이 수락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준비 질문이 50% 전후의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주말에이사하는 거 좀 도와줄래?'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묻는 질문은 30%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반면에 집단4(46~55),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준비 질문의 사용 빈도가 3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직접 질문이 뚜렷하게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	33	21	54
주말에 바빠?/뭐해?/시간 있어?	54	66	120
주말에 이사하는 거 좀 도와줄래?	31	64	95
OO야, 주말 이사 도와줘야 해	1	1	2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6	12	18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1	5	6
기타	4	1	5
합계	130	170	300

<표 87> 성별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3> 성별에 따른 요청/부탁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명령하듯 요청하는 표현인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라)'와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질문하는 표현인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는 명령하듯 요청하는 표현을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질문하는 표현을 뚜렷하게 더 많이 사용한다.

[담07]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등

이 문항은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할아버지께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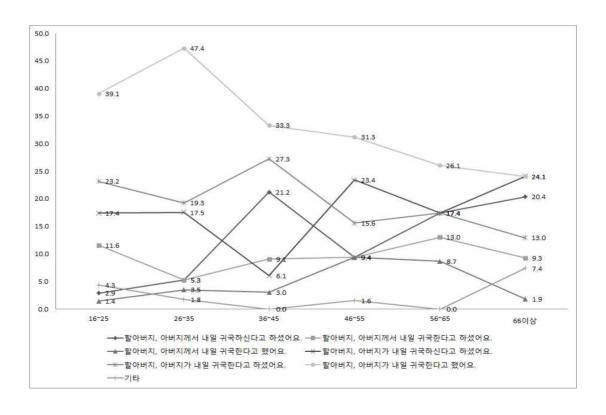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께서 O, -시- O, -시- O
2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께서 O, -시- X, -시- O
3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께서 O, -시- X, -시- X
4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께서 X, -시- O, -시- O
5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께서 X, -시- X, -시- O
6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께서 X, -시- X, -시- X
7	기타	

조사 결과,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완전하게 적용한 표현(34.6%)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고, 이어서 '할 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마지막에 한 번 출현하는 표현(19%),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만 사용하지 않은 표현 (18.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반면에 '할아버지, 아버지 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비율도 11%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의 사용 양상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2.	3	7	6	4	11	33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۷	3	,	U	4	11	33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8	3	3	6	3	5	28
하셨어요	O	J	7	0	J	7	20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1	2	1	6	2	1	13
했어요	1	۷	1	O		1	15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하신다고	12	10	2	15	4	13	56
하셨어요	12	10	<u> </u>	15	4	13	50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16	11	9	10	4	7	57
하셨어요	10	11	9	10	4	/	37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27	27	11	20	6	13	104
했어요	۷/	۷/	11		U	13	104
기타	3	1	0	1	0	4	9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88>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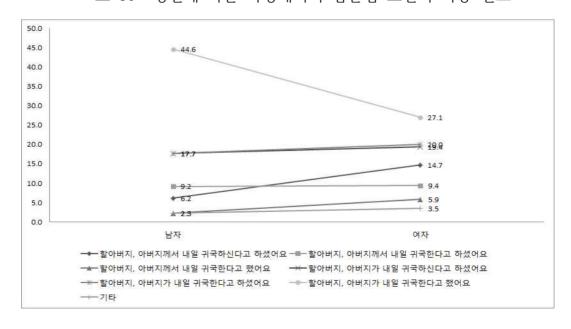


<그림 44>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집단1(16~25), 집단2(26~35)의 청년층에서 완전한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이 약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집단3(36~45), 집단4(46~55), 집단5(56~65)부터는 그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단6(66 이상)에서는 완전한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이집단2(26~35) 연령층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표현이집단3(36~45)에서 21.2%, 집단5(56~65)에서 17.4%, 집단6(66 이상)에서 24.1%등의 세 연령층에서 20% 전후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연령대에따른 단계적 양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남자	여자	합계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8	25	33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12	16	28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3	10	13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23	33	56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23	34	57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58	46	104
기타	3	6	9
합계	130	170	300

<표 89>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5>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완전한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완전하게 적용한 표현을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한다.

[담08]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등

이 문항은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직장에서 부장의 소식을 사장에게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접미사 '-님', 그리고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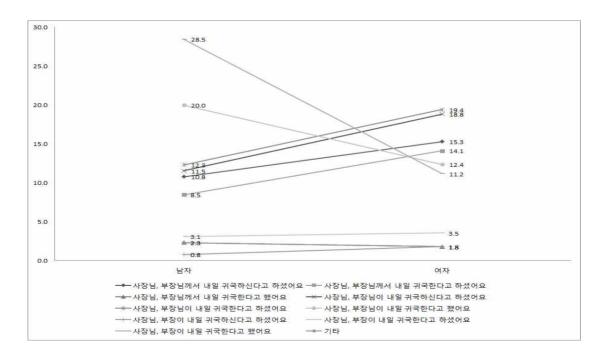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O, -께서 O, -시- O, -시- O
2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O, -께서 O, -시- X, -시- O
3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부장: 님 O, -께서 O, -시- X, -시- X
4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O, -께서 X, -시- O, -시- O
5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O, -께서 X, -시- X, -시- O
6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부장: 님 O, -께서 X, -시- X, -시- X
7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X, -께서 X, -시- O, -시- O
8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부장: 님 X, -께서 X, -시- X, -시- O
9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부장: 님 X, -께서 X, -시- X, -시- X
10	기타	

조사 결과,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완전하게 적용한 표현(18.6%)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가정에서의 완전한 압존법 표현 사용 비율(34.6%)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에서도 직장에서는 완전한 압존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언어 예절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높임의 접미사 '-님'과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한번씩 출현하는 표현(16.3%),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

요.'(15.6%),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15.6%) 등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반면에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비율도 13.3%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양상에서는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성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14	26	40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11	24	35
사장님, 부장님께서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3	3	6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15	32	47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16	33	49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26	21	47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1	3	4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4	6	10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37	19	56
기타	3	3	6
합계	130	170	300

<표 90> 성별에 따른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6> 성별에 따른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완전한 압존법 표현 또는 완전한 압존법에 가까운 표현의 사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가 '사장님, 부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와 같이 압존법을 완전하게 적용한 표현을 여자보다 2.5배나 더 많이 사용하며, '사장님, 부장님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와 같이 완전한 압존법에 높임의 접미사 '-님' 하나만을 추가한 표현도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한다.

[담10] 승낙 표현, '알았어/알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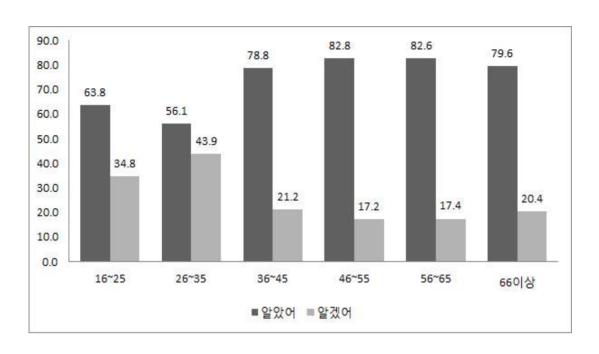
이 문항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승낙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양상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승낙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표현	분류
1	알았어.	요청 승낙 확인 표현
2	알겠어.	요청 수행 의지 표현
3	기타	

조사 결과, '알았어.'의 사용 비율이 72.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알겠어.' 의 사용 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또한 승낙 표현의 사용 양상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알았어	44	32	26	53	19	43	217
알겠어	24	25	7	11	4	11	82
결측	1	0	0	0	0	0	1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91> 연령대에 따른 승낙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7> 연령대에 따른 승낙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승낙 표현의 사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알았어.'의 사용 비율이 '알겠어.'의 사용 비율보다 분명하게 높기는 하지만 2배까지 차이 나지는 않은 반면, 집단3(36~45), 집단4(46~55),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는 '알았어.'의 사용 비율이 '알겠어.'의 사용 비율보다최소 3배 이상,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담11] 호출 표현, '저기요/여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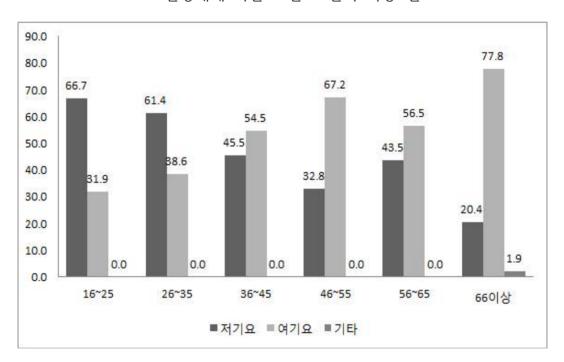
이 문항은 식당에서 주인 또는 종업원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호출 표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표현	분류
1	저기요.	청자 중심 표현
2	여기요.	화자 중심 표현
3	기타	

조사 결과, '저기요.'의 사용 비율(46%)과 '여기요.'의 사용 비율(53.3%)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저기요	46	35	15	21	10	11	138
여기요	22	22	18	43	13	42	160
기타	0	0	0	0	0	1	1
결측	1	0	0	0	0	0	1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92> 연령대에 따른 호출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8> 연령대에 따른 호출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승낙 표현의 사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청자 중심적인 '저기요.'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집단3(36~45), 집단4(46~55),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화자 중심적인 '여기요.'의 사용 비율이

더 높고, 특히 집단6(66 이상)에서는 '여기요.'의 사용 비율이 '저기요.'의 사용비율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담12] 비확정적 표현, '- 것 같아요'

이 문항은 방송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예쁘거나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 사용하는 표현들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한 답지는 다음과 같이 확정적 표현과 비확정적 표현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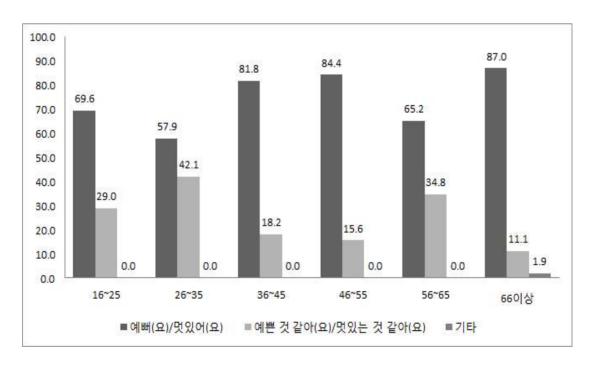
	표현	분류
1	예뻐요/멋있어요.	확정적 표현
2	예쁜/멋있는 것 같아요.	비확정적 표현
3	기타	

정승철 외(2014)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와 달리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제보자의 자유로운 응답만을 통해 비확정적 표현의 양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지도(93.0%)와 수용 정도(80.3%)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응답 은 6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집단6(66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과의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 것 같아요' 표현의 인지 여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는 집 단6(66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지도가 20% 이상 떨어졌 다. 또한 '- 것 같아요' 표현의 사용 여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는 훨 씬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집단6(66 이상)에서만 '- 것 같아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사용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으며 그 차이도 무려 84.6%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 것 같아요' 표현의 수용 여 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집단6(66 이상) 에서만 '- 것 같아요' 표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 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된 답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조사하였는데, 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74.6%)이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24.6%)보다 3배 더 높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연령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6~25	26~35	36~45	46~55	56~65	66 이상	합계
예뻐(요)/멋있어(요)	48	33	27	54	15	47	224
예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20	24	6	10	8	6	74
기타	0	0	0	0	0	1	1
결측	1	0	0	0	0	0	1
합계	69	57	33	64	23	54	300

<표 93> 연령대에 따른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빈도



<그림 49> 연령대에 따른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정승철 외(2014)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6(66 이상)의 연령층에서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집단1(16~25), 집단2(26~35)의 청년층에서 비확정적 표현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집단5(56~65)에서 집단1(16~25), 집단2(26~35)에 못지않은 사용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유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III. 결론

4. 연구의 의의

4.1 본조사의 의의

오늘날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감지되는 시기에 특히 인구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도권의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특히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어생활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민의 언어생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각 지역에서 모인 방언 화자를 포함하여 사회방언학적 변인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들이 모인 대한민국의 축소판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 도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함으로 공통어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효과적 언어정책과 어떠한 사회언어 학적 변인이 언어생활 속에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 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통과 불통의 경계에 있는 언어 내적, 외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4년 조사보다 제보자 수를 늘림으로 지난 결과의 의문점 및 오해 해결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

➤ 음성/ 음운

- 연령에 비례하여 대체로 'e'('떼')와 'ε'('때')의 발음 비율이 증가
- 고빈도 단어군에 대한 고모음화의 진행 확인과 성별 요소와도 관련
- ㄴ 첨가 현상은 단어 연쇄에 따른 발생빈도에 차이가 보이며 세대 구분 확실
-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발음인 움라우트는 세대와 밀접하며, 직업군과도 상당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

- 자음군 단순화의 경우 서울 거주 지역과 관련성(관악구와 성북구: 전라도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음)이 있음.
- 비교적 학력이 높고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서대문구의 경우 표준 발음('막따') 비율이 높음.
- 비유기음화는 전라도 및 경상남도 방언의 특징이므로 2014년 평택조사와는 달리 서울에 그러한 방언 특징이 영향을 미치며 지역적 특징 반영
- 치조비음화형('원눔')으로의 실현이 남성보다 여성이 빈번하며, 연령이 적을 수록 'ㄴㄹ'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아짐.
- 표준형의 실현이 세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줌(예: 베개, 나니까). 서울 지역에서 이 단어는 표준형이 점차 보급되다가 10대에 이르러 비표준형을 완전히 축출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어형

➤ 어휘

- 언어생활 중 어휘 레벨에서는 개인의 인지와 사용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함.
- 남성이 비문법적 표현 사용이 많다는 것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 은 확인함. - 주라고, 달라고
- 여자가 남자에 비해 표준어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세대 간의 소통에 가장 문제 드러난 부분 줄임말, 순화어, 외래어
- 단무지(다꾸앙) 등 잔존 일본어가 순화가 잘된 이유는 한국에서 순화 대상 으로서 잔존 일본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고유어로 정착이 비 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시사함.
- 외래어와 관련해서는 집단3(36~45)이 변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음.
- 호칭과 관련하여 아버지/아빠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 과 어머니에 대한 친근감의 표출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세대 간 언어변종 확인 가능 '여보'에서 '00 아빠'로의 전환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남편 호칭의 경우 새로운 호칭의 탄생 - '그이'의 확인과 확산

- 의외인 것은 집단1(16~25)에서 '집사람'이 '와이프'를 크게 앞서는 양상.
- 반면 집단2(26~35), 집단3(36~45)에서는 '와이프'가 좀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이며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집사람'이 압도적인데 그 이 유는 주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에 많이 쓰이던 집사람이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점점 그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으로 예상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엄마'라는 호칭을 선호
- 남성의 경우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70%를 상회
- 사회적 호칭의 확산이 보이는 항목 '사장님'에서 상당수가 '선생님'으로 변화
- 남성은 '사장님(13.8%)'이라는 호칭보다 '선생님(44.6%)'이라는 호칭을 선 호하고 여성의 경우 '선생님(35.9%)'과 '아저씨(29.4%)'를 선호함.
- '말을 섞지 마라'고 발화하는 빈도가 집단1(16~25), 집단2(26~35), 집단
 3(36~45)에서는 3배 높게 나타남을 확인, 이와 동시에 남녀 차이도 존재

➤ 문법

- 남자가 여자에 비해 '하십시오.'체를 10%이상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물건을 살 때 '이거 주십시오.'와 '이거 주세요.'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를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는 연령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
- 집단6(66 이상)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보다 뚜렷하게 높음.
- 특히 집단1(16~25), 집단2(26~35)의 연령대에서는 '안 피곤하다.'의 사용 비율이 '피곤하지 않다.'의 사용 비율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음.

➤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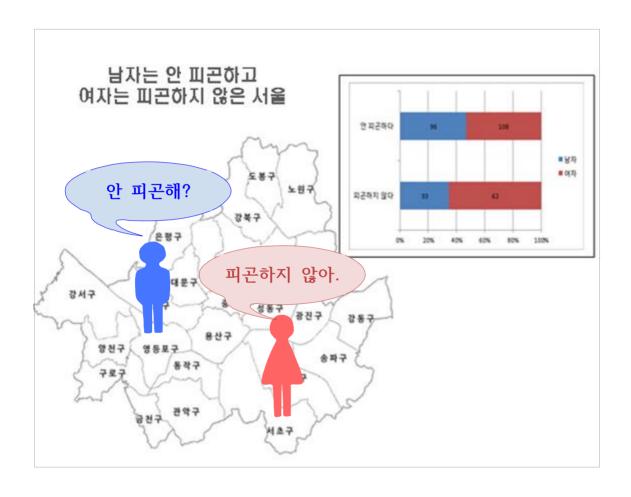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감사와 사죄 표현 방식의 차이를 발견
- 감사 응답 표현의 경우,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50% 전후로 상대적으로 높음.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10%를 조금 넘기는 정도로 낮게 나타남. 또한 '별말씀/별말씀을요.'의 사용 빈도도 집단1(16~25)에서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다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20% 전후인 반면, 집단3(36~45)에서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사용 빈도를 보임.

사과 응답 표현의 경우, 청년층과 집단5(56~65), 집단6(66 이상)의 높은 연령층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집단1(16~25), 집단2(26~35)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약 20~30%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집단5(56~65), 6집단(66 이상)에서는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가 6%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음.

4.2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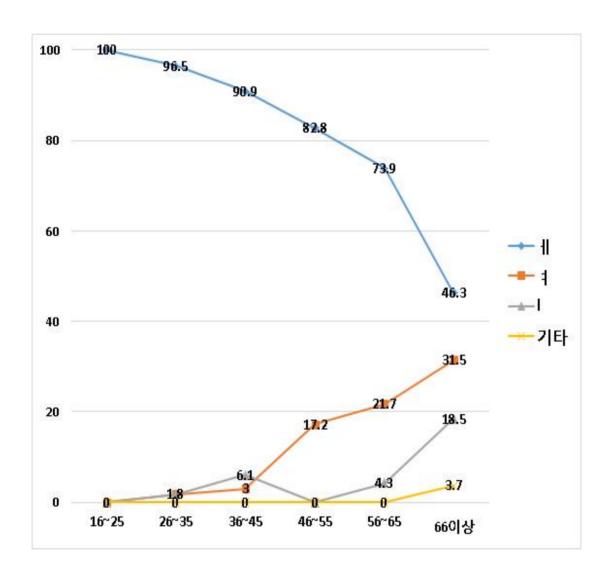
이 연구를 통하여 대도시 지역의 속성 간 구분 도표를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준어형 발음, 줄임말, 호칭 등의 언어사용 양상 그래프를 마련해 볼 수 있다.



<그림 50> '피곤하지 않다'와 '안 피곤하다'의 남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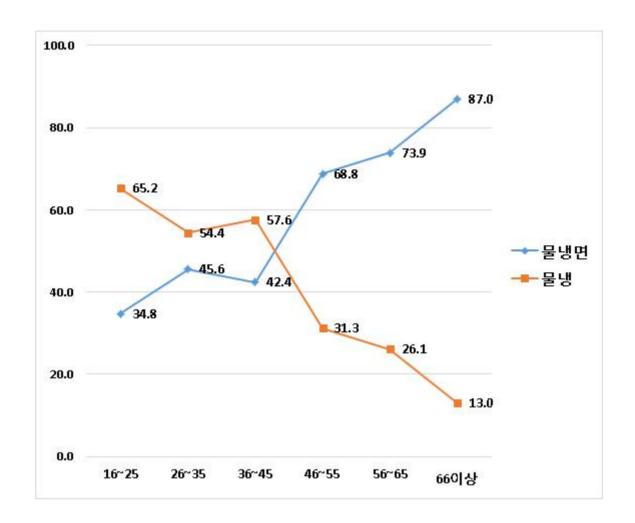
부정문의 사용에 대해 나타낸 위 그림을 통해 '피곤하지 않다.'와 '안 피곤하다.'의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절이 긴 단어일 경우, '-지 않다'의 긴부정형을 사용하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은 비표준형인 짧은 부정형('안-')의 사용이 높은데 이 항목만을 놓고 볼 때도 사회언어학적 속성 중 성별에 의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준형의 실현이 세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베개'이다. 대도시인 서울 지역에서 이 단어는, 표준형이 점차 보급되다가 10 대에 이르러 비표준형을 완전히 축출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 표준발음 '베개'의 세대 차이

다음으로 세대 간의 소통에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부분이 줄임말이다. 그 대표적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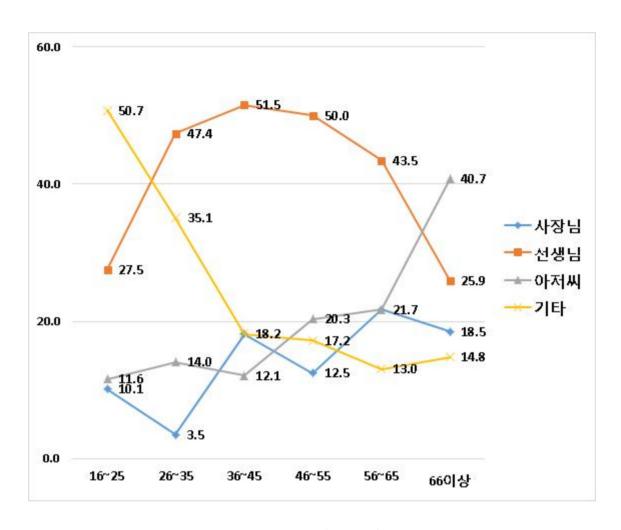
<그림 52> 세대 간 소통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줄임말 '물냉'의 차이

급변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줄임말 및 축약형은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축 약 패턴 등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호칭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호칭,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그이'라는 새로운 호칭의 등장이 대도시 지역의 언어생활 습관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약층을 중심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잘 모르는 동년배나 그 이

상 나이의 남자를 부르는 말로 '사장님'이 많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하여 '선생님'이란 호칭의 약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선생님'이 가장 무난하며 부담이 없는 호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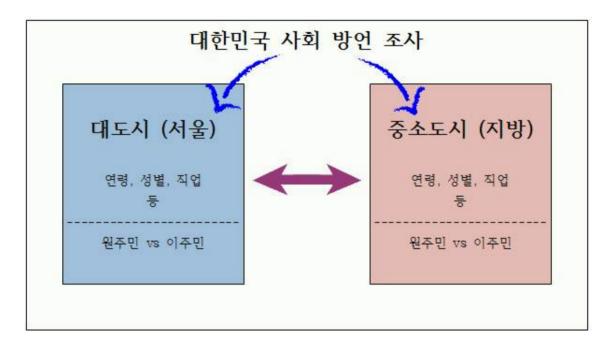


<그림 53> 어휘 확산 '선생님'의 세대 차이

이와 같이 급격한 언어문화의 변화를 보이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연령대가 집단1(16~25), 집단2(26~35)/집단3(36~45), 집단4(46~55)/집단5(56~65), 집단6(66 이상)으로 3세대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에서 왜 그러한 세대 구분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구분을 초래한 언어 내적·외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 향후 다른 대도시 지역 또는 중소 도시 규모와 경제력 등과 구분되는 지역을 비교함으로 써 이러한 현상의 사회·문화·경제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 - 세대 간, 계층 간 -

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배려와 치유를 위한 바람 직한 언어문화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소통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중소 규모의 도시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대한 민국의 언어생활 양상과 언어정책 모델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4> 사회 방언 조사 비교 모델

<참고문헌>

- 강현석(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17(2).
- 강현석(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19(2).
- 강희숙(1992), 음장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30.
- 강희숙(1994), 음운변이와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희숙(2001), 대학생들의 특수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9(1).
- 곽충구(2002), 방언 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국어국문학회 엮음), 태학사.
-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말을 대상으로, 《언어학》30.
- 권순미(2008), 현대국어 L-a 연쇄의 변이 현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규현 외(1996), 대화조직상의 성별 차이: 평가와 이해확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4(2)1.
- 김덕호 외(2015), 《경제언어학:언어, 방언, 경어》역락 (번역서)
- 김선철 외(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50.
- 김선희 외(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2(1).
- 김선희(1993), 여성어에 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19.
- 김성헌(1997),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언어학》5(2).
-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32.
- 김재민(1998), 경어법 사용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6(2).
- 김정호(2007), 1970년대 "합쇼체"의 남성어적 성격에 관하여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25.
- 남궁화경(2008), 서울말 /괴/, /귀/의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34.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5(2).
-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 논문.

- 박경래(1989), 괴산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국어국문학》101.
- 박경래(1993), 충북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박사학위 논문.
- 박경래(1994), 충주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개신어문연구》10.
- 박경래(1999), 청원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청자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를 중심으로,《개신어문연구》16.
- 박경래(2000), 단양 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개신어문연구》17.
- 박소라(2004),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순형(2011),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85), 한국어 복자음 발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논집》24(1).
- 박정자(2007),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덕(2000), 안동 지역어의 흩홀소리 체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7.
- 박주경(1987),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11.
- 박지윤(2011), 서울 지역 세대 간 /ᅦ/와 /ㅐ/ 모음의 포먼트 측정 조음음성학적 특징과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88.
- 배혜진 외(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民族文化論叢》46.
- 양민호(2014), 언어경관 자료를 통한 한일 외래어의 신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日本語文學》61.
- 오새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 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경희(2009),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수의적 음운변동 현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용욱(1993), 강화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길재(1991), 남원지역 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령별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길재(2004), 곡용과 활용의 어간재구조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나주 지역어 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12(1).
- 이노우에 후미오저, 김덕호외 번역(2015), 《경제언어학-언어, 방언, 경어》, 역락.
- 이미재(1988),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기도 화성 방언을 중심으

- 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박사학위 논문.
- 이미재(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수 원대학교 논문집》7.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7(1).
-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2.
- 임칠성(1997), 연령층별 성별 어휘 사용의 계량적 고찰 방송극 일출의 대사를 대 상으로, 《새국어교육》54.
- 장승혜(2011), 어두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 사학위 논문.
- 전지은(2014), 핵심어 분석을 통한 성별, 연령별 발화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22(1).
- 전혜숙(2008),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정명숙 외(2000),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논집》 42(1).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일진(1997), 표준어 단순모음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말소리》 33/34.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한경호 외(2002), 여수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과학과 교육》 10.
-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준일(2014), 서울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 음장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ㅊ), (ㄷ)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11(1).
- 홍민표(2010), 『언어행동문화의 한일비교』, 한국문화사.
- 황보나영(1993),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国立国語研究所 (2011), 《大都市の言語生活 分析編・資料編》, 国立国語研究所報告.

<부록>

질문지

교차분석표



부록 I

<질문지>



부록 II

<교차분석표>



책임 연구원: 양민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공동 연구원: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조태린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임석규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김수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연구 보조원: 김동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연구 보조원: 임홍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공동 연구원: 김경혜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공동 연구원: 이지애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담당 연구원: 박주화 (국립국어원 연구원)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발 행 인 송철의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 쇄 일 2015년 12월 15일

발 행 일 2015년 12월 15일

인 쇄 성결대학교 (전화: 031-467-8384)